

황 경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사회과 교육에서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송 혜 진

사회과 교육에서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황 경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송 혜 진

# 인 준 서

송혜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印

심사위원————— 印

심사위원————— 印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 문 개 요

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숙고의 과정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 사회가 지나친 이기주의와 배타적 경쟁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시달리고 있음을 자조 섞인 목소리로 비판한다. 근대 이후 자유의 확산과 함께 나타난 부정적 측면의 사회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절대적 미덕으로만 여겨졌던 ‘자유’의 가치에 대해 회의론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병폐를 치유해줄 대안으로서 공동체 의식에 터한 온정적 공동체의 부활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이를 최대한 실현시키는 것이 옳음을 강조하는 반면, 공동체주의는 사회는 개인에 우선하므로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그 자체로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는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을 때라야 온전히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위적 판단 하에 우리의 교육도 이러한 가치를 지향해야 함을 전제하고 사회과교육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는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정치, 경제, 사회·문화-교과서에서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은 각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도출하게 된다. 자유주의는 J. Rawls의 정의론을 기준으로 하고, 공동체주의는 Rawls의 이론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그와 대비되는 주장을 펼치는 A. MacIntyre, M. Sandel, C. Taylor, M. Walzer와 같은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해 낸다.

# 목 차

## 논문개요

|  |    |
|--|----|
| I. 서 론 .....                               | 1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1  |
|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 4  |
| 3. 연구의 제한점 .....                           | 6  |
| II.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론 .....                   | 8  |
| 1. 자유주의 이론 .....                           | 8  |
| 1) 자유주의의 역사적 흐름 .....                      | 8  |
| 2) 자유의 개념 .....                            | 10 |
| 3) J. Rawls의 자유주의 .....                    | 14 |
| 4) J. Rawls의 정의론을 토대로 도출한 자유주의의 개념범주 ..... | 21 |
| 5) 자유주의 교육관 .....                          | 24 |
| 2. 공동체주의 이론 .....                          | 27 |
| 1) 자유주의 비판과 공동체주의 .....                    | 27 |

|   |    |
|---|----|
| 2) 공동체의 개념 .....                          | 29 |
| 3)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 .....                  | 30 |
| 4) 공동체주의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도출한 공동체주의의 개념범주 ..... | 41 |
| 5) 공동체주의 교육관 .....                        | 44 |
| 3.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                      | 45 |
|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개념범주-분석의 이론적 틀             |    |
| <b>Ⅲ.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 분석</b> .....            | 49 |
| 1. 사회과 교육의 목표 및 교육방향 .....                | 49 |
| 1) 사회과 교육의 목표 .....                       | 49 |
| 2)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방향 .....                   | 51 |
| 3) 사회과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향 .....                 | 54 |
| 2.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           | 56 |
| 1) 분석의 접근 방법 .....                        | 56 |
| 2) 각 영역별 내용 분석 .....                      | 61 |
| 가. 정치 영역 .....                            | 61 |
| 나. 경제 영역 .....                            | 75 |
| 다. 사회·문화 영역 .....                         | 82 |

|                       |     |
|-----------------------|-----|
| <b>IV. 결 론</b> .....  | 93  |
| 1. 요약 .....           | 93  |
| 2.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 | 95  |
| 3. 결론 .....           | 104 |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목 차

|                                      |    |
|--------------------------------------|----|
| <표-1>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개념범주-분석의 이론 틀..... | 47 |
| <표-2>교과서 분석의 단계 .....                | 59 |
| <표-3> <표-1>에 입각한 교과서 분석 단위 선별 .....  | 59 |
| <표-4>정치 교과서의 단위 구성 및 주요 내용.....      | 62 |
| <표-5>경제 교과서의 단위 구성 및 주요 내용.....      | 75 |
| <표-6>사회·문화 교과서의 단위 구성 및 주요 내용 .....  | 83 |
| <표-7>교과서 기술내용의 각 항목별 분포 .....        | 96 |
| <표-8>각 교과 영역에서의 강조점.....             | 98 |
| <표-9>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교과서 상의 비율.....     | 98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근대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수히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것은 가시적인 외관상의 변화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사회 구조는 근대 이전과 아주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의 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유에 대한 신념이었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 실천적 움직임은 17세기 계몽주의의 등장과 함께 더욱 거세어졌다. 게다가 서구 사회에 불어 닥친 시민혁명의 바람은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었고, 이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누구도 그 당위성을 의심하지 않는 최우선의 가치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과 함께 사람들은 서서히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쟁취하며 스스로 자유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것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외부적 간섭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각자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주의 철학의 등장과 시민적 자유의 실제적 확산은 근대 이전에 비해 더욱 풍요롭고 민주적인 사회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진보를 의미했다.

그러나 자유의 확산과 함께 당면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자유를 하나의 종교처럼 신봉하던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우애롭고 온정적이던 공동체는 변질되어 갔고, ‘우리’ 보다는 ‘나’를 강조하는 가치관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자유는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해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자유’라고 하는 절대적 미덕이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양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 온 셈이 된 것이다. 하나의 불평등 구조는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다. 이러한 재생산 구조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와 심화는 결국 누구에게나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자유의 권리마저도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즉 자유가 또 다른 자유를 억압하는 모순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근대 이후 자유주의 사회에서 나타난 이러한 병폐는 사회의 자연적 치유능력으로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병폐를 치유해 줄 적극적인 조정자로서의 국가를 원하게 되었다. 독립적 주체로서의 개인의 완전한 자유 실현을 위해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며 소극적인 역할에 만족해야 했던 국가는 이제 사회발전과 보다 큰 자유의 실현을 위해 부권적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자유주의에 대해 반감을 드러

내며 공동체의 복원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유주의가 공동체의 가치를 지나치게 경시하거나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유주의가 사회를 ‘원자화된 개인들의 집합체’로 전락시키고 개인주의를 조장하여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주의 이론에 따르면, 공동체를 벗어나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권리는 물론이고 보다 근원적인 개인의 정체성마저도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권리 찾기’라는 말 자체도 타인과의 연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는 공공선에 우선한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모순점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나의 권익을 찾되 나를 둘러싼 타인들의 권익이 무시된다면, 이는 곧 또 다른 개인의 권리침해를 의미하므로 자유주의 논리의 기본구조를 뒤흔드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의 복원이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사회적 연대와 배려의 윤리가 다시 회복되고 공동의 가치가 중요시되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도 더욱 자유롭고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집단주의 또는 전체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과 공동체를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하고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믿는다. 이는 곧 ‘개인 안의 공동체’, ‘공동체 안의 개인’이라는 관계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

아발전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된다.

이처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서로 다른 가치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내세우는 각각의 가치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며, 그로부터 어떤 교육적 시사점을 발견해야 하는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그 자체로서 완전할 수 없는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 없이는 공동체가 존립할 수 없고, ‘공동체’ 밖의 ‘개인’이 존재감을 가질 수 없듯이 이 둘은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을 때라야 온전히 기능하고 유지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도 각각이 지향하는 가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회과의 교육 목적이나 교육 내용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지향과 일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사회과교육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조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사회과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는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정치, 경제, 사회·문화-교과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분석의 근거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론을 정리하고 각 이론의 개념범주를 명확히 함으로써 마련된다. 각 이론의 개념 범주는 교과서 분석의 이론적 틀로 활용되며, 교과서 상의 기술 내용이 분석의 틀에 합치되는 경우를 추출하여 중단

원 별로 그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주로 개념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분석의 이론적 틀로 활용된 ‘개념범주’는 각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도출하게 된다. 자유주의는 J. Rawls의 정의론을 기준으로 삼으며, 공동체주의는 Rawls의 이론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그와 대비되는 주장을 펼치는 A. MacIntyre, M. Sandel, C. Taylor, M. Walzer와 같은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해 낸다.

본 논문의 전개 과정 및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방법 및 연구의 제한점을 서술한다.

II-1 자유주의 이론에서는 시기나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 자유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고, 자유주의에서 핵심적 가치로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자유주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J. Rawls의 정의론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자유주의 이론의 개념 범주를 명확히 한다. 더불어 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육적 시사점을 알아보고, 사회과 교육에서는 자유주의적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II-2 공동체주의 이론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공동체주의 이론을 살펴본다. 우선 공동체주의의 핵심인 ‘공동체’가 갖는 특징은 무엇인지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해 보고, 이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핵심적인 논쟁점을 확인한다. 여기서는

자유주의 이론과 공동체주의 이론이 어떤 면에서 엇갈리는 특징을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로 알려진 A. MacIntyre, M. Sandel, C. Taylor, M. Walzer의 이론을 탐색함으로써 Rawls의 자유주의에 대한 이들의 비판적 분석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론을 ‘공동체주의’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을 수 있을 만한 공통점을 찾아본다. 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공동체주의 이론의 개념범주가 되며, 그것을 통해 공동체주의의 교육적 함의를 알아보고 이것이 사회과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핀다.

Ⅲ장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 분석에서는 앞서 살펴본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 이론이 현행 사회과교육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본격적인 교과서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 교육법이 공시하는 바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포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사회과 교육의 목표와 교육방향을 정리해 보고, 그것이 지향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의 사회과교육이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에서 강조하는 상반된 가치들을 얼마나 잘 조화시키고 있는지 진단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면서 마무리 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논문은 연구의 핵심 주제인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에 대한 단일의 이론적 함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야기되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자유주의의 이론적 지표를 도출함에 있어 J. Rawls의 정의론을 토대로 했다는 점이다. 자유주의의 이론적 경향은 시기나 학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특징을 보이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자유주의 이론을 정의함에 있어 그 기준점을 찾기가 애매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한 학자의 이론은 자유주의 이론의 전체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나 Rawls의 정의론이 지금까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 주요 논점을 제시해 왔고 기존의 자유주의 이론을 수정·보완하여 포괄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자유주의 이론의 지표로 삼았다는 점을 알린다.

둘째, 자유주의의 이론적 지표를 결정함에 있어서 Rawls의 입장이 어떻게 이해되든 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 문제 중 일부는 Rawls의 이론에 의해 간접적으로 제기된 것들일 수 있고, 상당 부분 공동체주의자들의 분석에 의해 밝혀진 것들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셋째, 분석 text와 관련하여 현행 7차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 교과목은 10학년 통합 사회, 심화·선택 영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 사회 등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서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주로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핵심적인 사회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체제 등과 맞물려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그리고 현행 검인정 체제에서의 여러 교과서 중 각 영역당 2종 교과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미리 밝혀 둔다.

## 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론

### 1. 자유주의 이론

#### 1) 자유주의의 역사적 흐름

자유주의 이론에 관한 내용을 전개해 나가기에 앞서 ‘자유주의’라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어 온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는 중세의 봉건적 지배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사회와 경제체제를 확립하고자한 실천적·이념적 정치운동의 성격을 띠며, 대표적으로 J. Locke, C. Montesquieu, A. Smith, I. Kant, J. Madison, J. S. Mill 등에 의해 주창되었다.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리들은 여러 이론적 문헌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면서 자유주의 이론의 기본원리로 평가받고 있다.

근세의 자유주의는 종교적 자유를 요구하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정치적 자유의 요구와도 무관하지 않다.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부르주아 계급은 이전까지 그들을 구속하던 종교적·정치적·경제적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고, 이것이 자유주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sup>1)</sup>

이러한 근세의 자유주의는 합리론적·자연법적 전통과 경험론적·공리

---

1) 서임수(1998), “자유주의적 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대학원, pp.16-17

주의적 전통으로 이어져 전개되어 갔다. 특히, 기계론적 자연법 사상에 입각한 근세의 자유주의는 T. Hobbes와 J. Locke의 개인주의 사상 및 A. Smith의 자유방임주의로 계승되어 발전하였다. 홉스는 평등한 개인의 자연권에 기초한 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형태로 설명하면서, 평등한 개인이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였다. 로크는 자유 실현을 위한 기본적 조건으로서 생명, 재산, 안전 등을 꼽고 이를 인간의 불가침적 자연권으로 생각하였는데, 각 개인이 이러한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계약을 통하여 스스로 정치공동체를 구성했다고 보았다. 여기서 로크가 말하는 정치공동체는 단지 자연권의 침해 여부를 판결하는 소극적 의미의 정부를 말한다. 이러한 로크의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 이론의 기저가 되었고, 20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R. Nozick의 최소국가론으로 부활되기도 하였다. 스미스는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적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는 대표적인 경제적 자유주의 이론으로 평가받으며, 철저한 개인주의적 성격을 띤다.

또한 18세기 합리론적 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이론으로서 공리주의적 자유주의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공리주의자로는 벤담과 밀을 꼽을 수 있는데, 벤담은 사회 전체의 행복은 개인의 쾌락적 행복의 총화에 있으며,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행동은 자유롭게 방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sup> 그의 이러한 주장은 앞서 제기되었던 자유방임주의 및 경제적 자유주의의 주장을 한층 단호히 한 것이었다. 밀은 개인의 자유가 적극 보장될 때 사회적 공리 즉, 개개인의 행복 총

---

2) 이수윤(1992), 「사회사상사」, 서울: 법문사, pp. 206-210.

량이 극대화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공리주의와 자유주의를 연결지었다. 밀의 이러한 생각 역시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에 바탕하고 있는 것으로서 강한 자유주의적 성향을 엿볼 수 있다.

19세기 말의 자유주의 사상은 사회적·정치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간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이론이 일부 수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L. T. Hobhouse나 T. H. Green과 같은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이 이러한 흐름을 이끄는 대표주자였다. 이들은 국가권력의 적절한 개입이 당시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서서히 사라져갔고, Rawls의 「정의론」이 출판된 이후에 개인의 권리 회복을 강조하는 진보적 성격의 자유주의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sup>3)</sup> Rawls는 보편적인 도덕강령으로서의 자유주의를 주장했다기보다는 보다 정의로운 형태의 정치를 위한 개인의 정치적·시민적 자유의 보장을 강조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내세웠다. 그는 더 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다른 어떠한 선에 의해서도 절대 침해될 수 없다는 ‘권리의 우선성’을 주장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견해는 공동선의 가치와 사회적 일체감을 중요시 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 2) 자유의 개념

자유라는 용어는 상당히 다의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누가 어떤 상황에

---

3) 서임수(1998), 위의 논문, pp.18-22.

서 자유를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용어의 다의적 성격에서 오는 애매함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자유’라는 말의 의미가 시기별·학자별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어 왔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역사는 각기 다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유를 희구하는 인간의 열정과 함께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자유라는 개념의 뿌리를 찾기 위한 출발점을 인간 역사의 시작점까지로 소급하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자유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의미를 갖기 시작한 근대 이후부터 자유의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자유는 르네상스, 종교개혁, 자본주의의 성장 및 과학혁명을 통해 16세기 이전의 중세 사회의 불합리적인 면들이 점차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실제적 정당성과 이론적 타당성을 체계화하게 되었다.<sup>4)</sup> 본질적으로 자유란, 구속이나 외부적 강제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보통 근대국가에서의 외부적 강제력은 국가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자유실현의 일차적 목표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sup>5)</sup> 그러나 이후 자유에 대한 논의는 자유의 범위를 보는 상이한 시각으로 인해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Isah Berlin은 자유의 개념을 단순히 외적 통제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로부터의 자유’와 개인의 보다 적극적인 자유 실현을 의미하는 ‘-에로의 자유’로 분류하기도 하였는데, 전자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이고 후자는 보다 적극적

---

4) 노명식(1991),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서울: 민음사, p. 89.

5) 전영곤(2002),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신자유주의의 교육적 함의”, 박사학위 논문, 창원대, p.15.

의미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소극적 자유관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권력을 서로 대치되는 가치로 여긴다.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개인의 자유는 극대화된다고 믿고, 개개인의 이익실현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적극적 자유관은 국가권력을 배척해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합당한 절차에 의해 형성된 국가권력은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갖고, 보다 고차원적인 인간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권력을 적극 활용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단순히 구속이나 외적통제로부터의 자유뿐만이 아닌 개인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빈곤, 무지, 질병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자유까지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 자유관은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평등, 분배의 개념을 더한 수정 자유주의 또는 복지국가론의 자유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sup>6)</sup>

Rawls는 자유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즉,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에 대한 논쟁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 이 주체가 자유롭게 되는 제한이나 한계, 그리고 주체가 자유롭게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자유가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 Rawls는 자유를,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 그들이 그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한 간섭으로부터도 보호되어 있는 경우”라고 말한다.<sup>7)</sup> 이렇게 개인이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와 정

---

6) 정명자(1992), “Rawls의 정의론에 입각한 자유교육의 개념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 pp.38-40

부나 타인들이 그것을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미묘하게 결합됨으로써 기본적 자유의 성격이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어떠한 형태의 자유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맞물릴 때, 개인의 자유 실현의 여부나 실현의 정도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Rawls는 이렇게 사람에게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자유의 제한 조건들이 평등한 자유의 권리가 개인에 대해 갖는 가치, 즉 ‘자유’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보다 큰 권력과 부를 가진 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자유실현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Rawls는 여기서 기초적 자유의 전체적 체계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자유의 가치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우선적인 이득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단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또한 Rawls는 “자유란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라는 명제를 들어, 자유에 대한 요구는 제일 먼저 충족되어야 할 최우선적인 원칙임을 강조하는 ‘자유’의 우선성(priority of liberty)’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다.

그가 이렇게 자유를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가치로 생각하는 근거는 그것이 인간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이기 때문이다. Rawls는 자존감을 인간이 갖는 자기 자신의 가치감, 자신의 인생 계획이 실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 그리고 자

---

7) J. Rawls(2003),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옮김, 서울: 이학사, p.276.

신의 의도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sup>8)</sup> 그의 이러한 논지에 따르면 개인의 우선적인 자유가 전제될 때라야 비로소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갖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그 자체로서 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치적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sup>9)</sup>

### 3) J. Rawls의 자유주의

가. 자유주의 이론의 기준으로서의 정의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유’라는 용어의 의미가 매우 다의적이고 추상적인만큼 ‘자유주의’가 갖는 명확한 특징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자유주의라는 이론적 정향에 관한 단일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유주의 철학은 정적이지 않으며, 변화하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조건에 적응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특징을 갖는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이론의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렇게 시기와 학자에 따라 조금씩 이해를 달리하는 다의적인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유주의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해도 큰 무리가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전통의 핵심은 F. A. Hayek(1960), J. Rawls(1971), R.

---

8) 위의 책, p.568.

9) 정명자(1992), 앞의 논문, pp.42-43

Nozick(1974), R. Dworkin(1978), B. Ackerman(1980), A. Gutman(1980: 1987)등에서 찾을 수 있다.<sup>10)</sup>

본 논문에서는 자유주의를 특징짓는 요소들을 J.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중심으로 찾고자 한다. Rawls의 정의이론은 자유주의에 대한 대표적 주제와 문제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 준다. 정의론이 출간된 이후 그의 이론은 정치적·이론적 논쟁의 장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공동체주의적 비판가들과 Rawls 이외의 자유주의 옹호자들이 모두 Rawls의 이론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의 핵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그 기준점을 Rawls의 정의론에서 찾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 나. Rawls의 정의론

롤즈는 이전까지 가장 우세한 도덕철학 이론으로 자리잡고 있던 공리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저술하였다. 실제로 공리주의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표를 제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롤즈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유력한 도덕관을 찾고자 했다. 그는 그것이 로크나 루소 그리고 칸트에 의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사회계약의 전통적 이론을 일반화

10) 심성보(1995), “공동체의식의 교육윤리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 p.7

11) S. Mulhall & A. Swift(2003), 「Liberals and Communitarians」 김해성·조영달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p.31.

하고 추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롤즈는 전통적 사회계약의 개념을 보다 일반화하고 추상화하여 ‘최초의 상황’이라는 말로 바꾸었는데, 이는 정의의 원칙에 이르기 위한 절차상의 제약 조건을 내포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롤즈는 기존의 사회 철학적 전통들을 대체할 수 있을만한 설득력 있는 정의론을 전개시켜 나간다.

롤즈는 정의를 인간 생활의 제 1의 덕목으로서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익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지극히 준엄한 것으로 생각한다.<sup>12)</sup> 정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불가침적인 성격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타인들을 위한 보다 큰 선 또는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선을 위해 절대로 희생되어질 수 없는 사회의 으뜸가는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다.<sup>13)</sup>

그가 말하는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를 말한다. 이는 “사회적 주요 제도가 권리나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회의 기본 구조는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고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롤즈는 자신의 이익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

12) 롤즈는 ‘정의’를 ‘선’과 독립적으로 규정하는데, ‘정의’는 ‘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대의 선을 산출하는 행동이나 제도가 정의롭다는 것이다. 한편, 롤즈의 정의론의 핵심인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선’의 개념에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와 달리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무조건적으로 긍정되는 것이다.(심성보(1995), 앞의 논문, pp.12-13.)

13) 공동체의 선보다도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 된다는 롤즈의 기본전제는 이후 공동체주의자들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 즉,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을 합의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들은 이후 그 조직체의 종류나 설립할 정부형태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가치가 되므로 공정성을 기하게 위해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상적 상황으로서의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을 전제한다. 원초적 입장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알지 못하며, 각자의 타고난 소질이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하다.<sup>14)</sup> 즉 최초의 상황에서 선택되는 정의의 원칙은 철저히 ‘무지의 베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철저히 평등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뜻하고, 롤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택되어진 정의를 ‘공정으로서의 정의’라 말한다.

롤즈의 주장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에서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

첫째, 각자는 모든 이에게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제 1원칙)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a)최소수혜자에게 가장 이득이

---

14) 원초적 입장의 주요 조건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의의 여건이 통용된다. 둘째, 정의원칙을 선택함에 있어 옳음의 형식적 제한 조건으로서 일반성, 보편성, 공지성(公知性), 서열, 최종성 등을 지켜야 한다. 셋째, 계약 당사자들은 지식조건에 있어 무지의 베일(당사자들이 모르는 것)과 사회적 기본가치(알고 있는 것)의 가정 하에 있다. 넷째, 계약당사자들은 합리적이며 상호무관심한 도덕적 행위자들이다.(이인숙(1995), “공동체주의에 대한 연구: 자유주의와 관련해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 p.13)

되며 (b)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는  
직책과 지위에 결부되어야 한다.(제 2원칙)<sup>15)</sup>

롤즈의 두 가지 정의원칙을 살펴보면, 제 1원칙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주장으로서 시민적 자유를 옹호하면서 구현되고 있다. 제 2원칙에서는  
단순한 시장의 결과보다 더 평등주의적인 자원분배와 기회균등에 대한  
신념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재분배적 복지국가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보통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개인의 시민적·정치  
적 권리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국한시키는데 반해 롤즈의 자유주  
의는 국가의 재분배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를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이다.<sup>16)</sup>

롤즈가 제시한 두 가지 정의원칙과 그 원칙이 도출되기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들-이를테면, ‘원초적 상황’이나 ‘무지의 베일’-은 종종 공동체주  
의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하여 쟁점화 된  
몇 가지 논제들을 언급하고자 한다.<sup>17)</sup>

### ① 인간관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가진 이들은 대부분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토대  
라고 간주하는 인간관에 대해 반론을 펼치며 각자의 주장을 전개시켜  
왔다. 이러한 반론은 특히 롤즈가 제시한 ‘원초적 상황’이라는 가상적인

---

15) 롤즈에 의하면, 제 1원칙은 제2원칙에 우선한다.

16) 이인숙(1995), 앞의 논문, pp.7-8

17) S. Mulhall & A. Swift(2003), 앞의 책, pp.40-67.

조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롤즈는 합리적이고 평등한 개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타고난 소질 등에 대해 무지한 상태 즉, '원초적 상황' 속에서 선택되어진 사회 정의 원칙을 통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는다. 여기서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롤즈의 견해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롤즈의 생각처럼 기존에 지닌 가치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수정하고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개인"에 대한 롤즈의 기본 전제가 과연 우리의 도덕적 경험에 부합하는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나 목적들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유령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또한 이러한 인간관이 단지 정의에 관해 생각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범위를 갖는가의 문제와 함께, 그것이 독자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참'의 본질을 갖는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 ② 반사회적 개인주의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자들에게 인간과 사회-혹은 공동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자유주의 이론은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 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계약론적 전통을 잇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체주의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점은 이와 같은 개인들의 계약적 접근이 이루어질 때 개인의 목적이 사회와 별개로 혹은 사회에 선행하여 이미 형성된다고 하는 가정이다. 개

인의 목적이나 가치관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사회를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사적인 결사체로 간주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밀접한 관련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부적절한 ‘반사회적 개인주의’라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롤즈가 ‘원초적 입장’이라는 제한적인 가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반사회적 개인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약론적 전통을 설명함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연 상태의 가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가 공동체적 가치나 사회적 속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그들의 그런 생각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 ③ 반환전주의와 국가의 중립성

국가의 중립성 문제와 관련된 핵심은 개인들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그들의 선관념을 추구함에 있어 국가가 그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완전주의적 이상을 의도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반환전주의적인 국가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를 형성하거나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자 할 때 국가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며, 단지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인 틀만을

마련할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의 중립성’으로부터 생겨나는 미묘한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국가가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가치에 대해 고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롤즈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무엇이 삶을 좋게 혹은 가치 있게 만드는가에 대한 판단’ 즉, 선의 문제에 관해서만 국가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중립성은 ‘옳음’의 문제나 ‘정의’의 문제에 까지 해당되는 예외 없는 조건은 아니다.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완전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특수하고도 제한된 의미에서 중립적인 국가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J. Rawls의 정의론을 토대로 도출한 자유주의의 개념 범주

##### ① 권리의 우선성

자유주의의 이론적 지표로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권리의 우선성’이다. 이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불가침성을 공언하고 그 어떤 공동선보다도 개인적인 권리가 우선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권리의 불가침성은 개별 인간의 평등한 가치와 존엄성에 근거하고 있다.<sup>18)</sup>

---

18) 심성보(1995), 앞의 논문, p. 7

## ② 사회(공동체)에 우선하는 개인 : 개인주의적 인간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롤즈의 기본 전제인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과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은 자유주의가 어떤 인간관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의 평등한 원초적 입장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징은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신의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당사자들은 어떠한 가치관이나 개인적 성향을 가지지 않는다. 이는 곧 타고난 조건이나 사회적 여건이 그들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가정하는 것이다.<sup>19)</sup>

이처럼 롤즈의 자유주의에서는 사회와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독자적 인간을 전제하고 있다.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선택은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개인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 ③ 반환전주의적 국가의 중립성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외부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가치를 지향해서는 안 되고 가치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

---

19) J. Rawls(2003), 앞의 책, pp. 46-47.

또한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곧 정의이고, 이것은 보편타당한 ‘옳음’의 원리이므로 국가는 이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④ 개체성, 합리성, 자율성의 강조

개체성, 합리성, 자율성은 자유주의가 개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다. 첫 번째, 개체성이란 개인이 사회라는 전체 속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고유한 개체로 인정된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다른 개체와 구별되는 경험적으로 분리된 존재라는 것이다.<sup>20)</sup> 두 번째, 개인의 합리성은 이성을 가진 인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는 개념이다. 인간은 계시나 권위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인 판단 영역에 있어서 사회는 어떠한 간섭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성은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임과 동시에 사회와 자발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sup>21)</sup> 세 번째, 자율성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규칙을 세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율성을 가진 개인에게 있어서 사회는 개인의 선택의 대상이자 소유의 대상일 뿐 그의 자아가 될 수는 없다.<sup>22)</sup>

---

20) 전제아(1991),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과 교육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p. 10.

21) 위의 논문, pp. 14-16.

## 5) 자유주의 교육관

여기서는 자유주의 원리가 교육과 결부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교육관이나 교육방법 그리고 강조되어지는 가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자유주의 이론이 애초부터 하나의 교육사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자유주의 이론이 내포하는 교육적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에 대한 절대적 신념을 궁극적 가치로 삼는다. 따라서 시기나 학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자유주의 이론의 다양한 갈래를 고려하더라도 자유주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공통의 교육적 의미를 찾아내는 데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즉, 자유주의적 신념에 입각한 교육 이론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기본가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보통 피교육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자유주의 이론에서 전제하는 인간은 합리적이며 자유로운 권리를 갖는 개별적 인간이다. 그들은 사회-혹은 공동체-에 우선하는 존재로서 불가침의 자유를 누리며 자율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피교육자의 자유와 권리, 합리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 교육관의 기본전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롤즈는 “권리와 정의에 터한 교육목적은 어떤 선한 삶에 대한 특정 개념을 개발하도록 하지 않으며, 어떤 것이 유일하게 내적 가치가 있다고 단언하지도 않는다.” 고 말한다. 또한 좋은 교육이란 “학

---

22) 위의 논문, pp. 16-18.

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선택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자율적인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자유주의적 시각에서의 좋은 교육이란 학습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즉 자율성의 강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sup>23)</sup>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의 선택에 대해서 국가의 중립성을 요구했던 것처럼, 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중립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랄 것이다.<sup>24)</sup> 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권리가 교사나

---

23) 여기서 말하는 교육에서의 자유란, 아동의 자율성과 관계되는 것이지만 교육에서의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아동은 주제적 위치에서 학교나 교사, 교과서, 교육환경, 교육연한 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정명자(1992), 앞의 논문, pp.90-92)

24) 네오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잇는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학교교육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마르크스는 학교교육을 일방적으로 지배계급의 아이디어를 전달함으로써 계급적 불평등을 재생산해내는 기관이라 여기고 그 부정적 기능을 역설하였으며, 레닌은 진정한 사회주의의 건설을 방해하는 기구로서의 학교를 강조하고 소멸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일리치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스스로 배울 것을 결정하는 개인적 동기, 그리고 타인에게 쓸모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천부의 권리’라 정의하고, 경제적·문화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학교를 주장하였다. 일리치는 학교가 학습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계급사회를 영구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낙오자로 전락시킴으로써 소수인들에게 독점적 권력을 부여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비판한다. 프레이리는 학습자가 자신의 내적·외적 상황에서 문제를 의식할 수 있게 하는 참된 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전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학교교육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국가의 중립성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아론스는 자유주의 국가의 헌법에는 정부가 가치 설득의 내용에 관하여 중립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법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학교를 통해 특정 가치와 덕을 조장할 권한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육에서의 부모의 권리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부모의 권리에 우선하며, 학교 교육이 좋은 삶에 대한 부모의 희망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개인의 삶의 가치는 스스로 선택해야 될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에 의해 간섭받거나 통제될 수 없다.<sup>25)</sup>

이처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에서는 교육도 개인의 자유 영역이므로 ‘가르침’ 보다는 ‘배움’에 교육의 중점을 둔다. 즉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아동들에게 제공하고 아동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이를 취사선택하여 배우게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다.<sup>26)</sup> 이는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과도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에 대해서 Bowers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그 특징으로 꼽고 있다.<sup>27)</sup> 첫째, 자유주의에 있어서의 교육은 ‘해방(emanicipation)’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교육은 개인이 외부의 자의적인 권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liberating)’ 과정이다. 이러한 자유화의 과정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개인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즉 교육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과정인 것이다. dewey의 ‘지성(intelligence)’과 Freire가 말하는 ‘의식의 고양(rasing consciousness)’은 각각의 이론에서 교육의 의미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인데, 이 역시

---

입장을 취한다. (서임수(1998), 앞의 논문, pp.103-113)

25) 이지현(1997), 「개인, 공동체, 교육. II.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사회주의」, 서울: 교육과학사, p.26.

26) 전영곤(2002), 앞의 논문, p.98

27) C. A. Bowers(1987), *Elements of Post-Liberal Theory of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pp. 47-49

모두 해방의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한다.

둘째, 자유주의에 있어서 지식은 곧 힘(power)이고 교육의 중심 개념으로 부각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개인의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인 경험에 의해 축적된 것을 뜻하며, 전통적 권위나 계시에 의한 지식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셋째, 자유주의에 따르면 교육은 변화와 유사한 개념이며, 이 때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진보적(progressive)이라고 여겨진다. 교육의 과정이 곧 진보의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strike도 자유주의에 기초한 교육에서는 합리적 자율성, 동등한 권리, 또는 평등과 같은 가치에 의하여 교육의 역할과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율성, 합리성, 독립성 등을 강조한다고 할 때, 교육은 그러한 신념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유주의에 내재된 교육적 의미는 개인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 2. 공동체주의 이론

### 1) 자유주의 비판과 공동체주의

앞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다른 어떤 선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로 상정하고 그 우선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유주의는 그 이론적 정당화를 위해 특정한 인간관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사회와 무관하게-혹은 사회에 선행하여- 그들의 가치를 형성하고 선택하는 합리적이며 독립적인 개별화된 인간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에서 전제하는 것처럼 사회와 유리된 개인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공동체주의자들은 롤즈의 정의론과 대비되는 주장을 펼친다. 그들은 사회에 우선하여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성향 즉, 개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한다. 그리고 흔히 개인주의의 폐해로 여겨지는 일련의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자유주의자들에게 묻곤 한다.

개인주의에 대한 이러한 반대 입장은 ‘공동체주의’라는 용어 자체에서도 나타난다. 공동체주의-개인주의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둘은 서로 상호 대립적인 자아관을 함축하고 있다.<sup>28)</sup> 하나는 공동체의 성원됨(community membership)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자율성(individual autonomy)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아이다.<sup>29)</sup>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개인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을 규정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사회적 관계의 망 속에서 형성됨을 뜻하는 것이다. 개인은 공동체의 유대 속에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으며, 합의된 전

---

28)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와 대립되는 인간관을 강조하고, 이를 비판하면서 등장하기는 했지만 이 두 관점을 완전히 분리시켜 생각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동체주의는 후기 자유주의 철학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첫째, 공동체주의는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자유주의 전통 속에서 발달한 것이다. 둘째, 공동체 가치가 몹시 쇠락해진 자유주의의 문화 속에서 발달한 것이다. 이를테면,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적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교정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라는 것이다.(이지현(1997), 앞의 책, p.49.)  
29) 이지현 편저(1997), 위의 책, pp.51-52.

통과 규범을 존중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공동체주의 안에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낼 수 있는 공통적인 믿음은, 공동체의 희생이, 현재 개인주의 이념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sup>30)</sup>

## 2) 공동체의 개념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이 그랬듯이 ‘공동체’의 개념 역시 아주 모호하다. 예컨대, 사회학자 Hillery의 분석에 의하면 공동체의 개념만도 94개나 되었다.<sup>31)</sup>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은 타인과의 관계 의식 속에서 단결하는 소규모 마을과 도읍의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비대해졌고, ‘연대성’이나 ‘우리의식’으로 특징지어졌던 성격도 다소 변질되게 되었다. 공동체의 성장과 다양성은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를 약화시켰고, 공동체 성원들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의 독특한 질은 쇠퇴하고 상실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소읍 공동체와는 다른 성격의- 또 다른 형태의 모임이 동일한 기능적 상호의존성과 연대 관계를 가지고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과거의 소읍공동체와 동일한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특징짓는 준거가 무엇인지

---

30) 이지현(1997), 위의 책, p. 53.

31) G. A. Hillery(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20. ; 이지현 편저(1997), 위의 책, p.54.

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체의 개념에 대하여 Daly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공동체란 관계의 망 속에서 얽혀 있는 사람들이 한정된 무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신념과 가치를 공유하며, 인간적이고, 항상 면대면의 관계이고, 자기 이해보다는 우애와 책임의식을 갖고 구성원들을 결합시키며, 성원들 사이의 연대가 몇 가지 측면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포괄하고, 성원들은 소속감, 즉 ‘우리의식’을 느끼고, 각 성원들의 이익과 정체성은 전체 이익과 정체성에 의존하여 그것을 형성하며, 성원들은 서로의 연대성을 선양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집단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을 위한 여러 조건 중 어느 것이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며 중요한 가치인가에 대한 뚜렷한 답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동체 개념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이 공동체주의 철학의 형성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sup>32)</sup>

### 3)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상이한 인간관을 전제하며, 서로 다른 가치들에 관심을 갖는다. 자유주의는 개별성에 기초한 자율적인 개인을 강조하고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개인을 강조한다. 또한 자유주의가 개인의 흥미, 자율성, 보편성, 자연적 권리, 그리고 중립성 등에

---

32) 심성보(1995), 앞의 논문, pp.6-7.

관심을 보이는 데 반해, 공동체주의는 공동선, 사회적 관행과 전통, 집단적 애착, 품격, 연대, 사회적 책임 등에 관심이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주로 자유주의의 기본 속성인 개인주의에 대해 인간의 선에 대한 본질적인 공동체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기적 에고이즘, 사적 개인주의, 사회적 연대의 이완, 그리고 공공선의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자는 공동체주의가 집단적 목적과 공공선에 치중함으로써 ‘개별적 자아’가 도외시되고 있고, 개인적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옹호하는데 실패했다며 전체주의의 위협성을 우려한다.<sup>33)</sup>

이렇게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두 철학적 관점 간의 논쟁은 롤즈의 정의론에서 드러난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공격이 시작되면서부터 본격화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대 이래 A. MacIntyre(1981), M. Sandel(1982), M. Walzer(1983), B. Barber(1984), C. Taylor(1989)등이 주도적이었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구조는 ‘개인’이 사회 보다 선행함을 강조하는 Kant의 개인주의·원자론의 입장을 따르는 롤즈를 하나의 축으로 하고, ‘사회’가 개인보다 우선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기체설과 전체론의 입장을 따르는 MacIntyre와 Sandel을 또 다른 축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sup>34)</sup>

이제부터는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들의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자유주의와 관련된 공동체주의의 주요 논점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 그들을 공통체주의 라는 하나의 사상적 틀로 묶을 수 있을 만한 공통된 합의가

---

33) 위의 논문, pp.8-10.

34) 위의 논문, p.9.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 ① A. MacIntyre

MacIntyre는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로서,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한 현대사회의 상황은 도덕적 기준이 없는 ‘무규범 상태’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도덕적 무규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공동체의 덕’을 제시한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이 도덕적 다원주의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본다.

MacIntyre는 오늘날의 이러한 도덕적 위기의 원인을 ‘주정주의(emotivism)’적 윤리관에서 찾는다. 그는 주정주의를 자유주의의 일종 또는 변종으로 이해한다. MacIntyre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개별적이고 다양한 도덕가치들이 모두 그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상황에서 도덕적 불일치가 만연하게 되었고, 그러한 도덕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합리적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정주의적 도덕 판단은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것은 다만 개별적 상황에서 도출된 개인적 선호 내지는 주관적 선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35)</sup>

또한 MacIntyre는 이렇게 각자의 생각과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와 기준을 갖지 못한 현대 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주의적 도덕관에 의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와 덕의 윤리를 회복

---

35) S. Mulhall & A. Swift(2003), 앞의 책, pp. 111-117.

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한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삶의 측면들이 그가 속해있는 공동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가능해진 것이다. 예컨대,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는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해 해석될 때에만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기초 하에 공동체적 삶이 복원되면 그 구성원들은 선에 대한 공통의 개념을 갖게 되는데, 이는 나의 선과 타인의 선이 서로 대립되거나 적대적 관계에 놓일 필요가 없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적 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치의 충돌과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MacIntyre는 공동체적 삶의 복원을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 공동체의 복원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sup>36)</sup>

MacIntyre는 공동체의 복원과 더불어 덕의 윤리 회복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가 시각에서 볼 때, 칸트가 말하는 개인적 자율성과 보편적 윤리 규칙은 도덕적 다원주의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고 있는 현대 사회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가 문제해결을 위해 제안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적 ‘덕’ 윤리의 회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서의 ‘선’을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유용한 인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다.<sup>37)</sup> 그리고 이 때 개인이 추구해야

---

36)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소규모 공동체 형성이 거대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비판론이 대두되기도 한다.

37)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의 실천이 선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을 최선으로 실현하는 삶의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부분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MacIntyre는 덕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인간 선을 적절히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관에 따르면, 덕을 실천하지 않고서도 인간선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들이 존재할 수 있

할 목적으로서의 ‘선’과 그들이 함양해야 할 ‘덕’은 그 공동체와의 연결고리 안에서-즉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의 범위 내에서-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sup>38)</sup>

결론적으로 MacIntyre의 주장은 특정 시대나 지역에 따라 그 사회에서 강조하는 선과 덕목은 달랐지만, 그 때마다 공통적으로 공동체의 가치가 중시되었고, 인간의 선에 대한 공통의 관념과 이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덕성의 함양을 강조함으로써 윤리적 회의주의나 도덕적 무규범 상태를 벗어나 안정되고 통합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39)</sup> 그는 이렇게 공동체적 삶의 회복과 서로 배척되지 않는 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선의 실현을 위한 덕의 함양이 절실하게 요구됨을 역설한다.

## ② M. Sandel

Sandel은 그의 저작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Liberalism and the Limit of Justice)」을 통해 롤즈의 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을 표명하면서 본격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이다.

롤즈에 대한 그의 비판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첫째, 그는 롤즈가 형이상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롤즈가

---

다는 언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된다.(MacIntyre(이진우 역, 1997),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pp.221-222.)

38) MacIntyre의 이러한 견해는 특정 공동체의 역사, 문화, 지역적 범위에만 한정된 상황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보편적 윤리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던 MacIntyre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설정이 라고 이해할 수 있다.

39) 정세구 외(2002), 「공동체주의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pp.46-49.

제시한 ‘원초적 상황’과 ‘무지의 베일’은 인간이 자신의 목적과 밀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도덕적 경험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타당하지 못한 관점이라는 것이다.<sup>40)</sup> 둘째, Sandel은 롤즈의 입장이 반사회적 개인주의라고 비판한다. 즉, 롤즈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sup>41)</sup> 셋째, Sandel은 롤즈가 개인의 도덕적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 객관주의적 관점보다는 주관주의적 관점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롤즈의 중립성 문제와 관련하여 Sandel은 경합하는 선관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한다. 다섯째, Sandel은 또한 롤즈가 정의론 전반에 걸쳐 사회 이전에 존재하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자아를 전제하면서도 부분 부분 이와 모순되게 자아의 상호주관적인 관념에 암묵적으로 의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sup>42)</sup>

Sandel이 롤즈에 대하여 가하는 비판의 초점은 인간이 사회 이전에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인간관에 맞춰져 있다. Sandel은 이러한 롤즈의 인간관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유주의 이론

---

40) 인간이 사회이전에 개체로 존재한다는 롤즈의 관점은 어떤 선이나 목적에 대한 애착도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필수적일 수 없도록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샌들은 롤즈의 인간관은 어떤 ‘공동체적 선’도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든다고 강조한다.(S. Mulhall & A. Swift(2003), 앞의 책, p.106.)

41) Sandel은 롤즈가 설정하였던 완전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는 허구라고 비판한다. 그는 한 개인의 자아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적 유대와 그가 따르고 있는 이상, 그의 삶을 구조화하는 사회적 조직들, 그리고 그의 의식과 행동 습관을 형성하는 전통과 역사 속에서 구성되는 자아, 이른바 사회에 불박혀 있는 자아, 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자아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세구 외(2002), 앞의 책, p.44.)

42) S. Mulhall & A. Swift(2003), 앞의 책, p. 75.

에서 가정하고 있는 도구적이고 감정적 개념의 공동체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도구적 협동체에 불과하다. 또 공동체에 존재하는 우애와 연대감은 사회적 협동에 필요한 감정적 측면에 불과하다. 그러나 Sandel은 인간의 진정한 공동생활을 반영하는 공동체는 ‘구성적’ 개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적 개념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서 구성원들의 정체성까지도 어느 정도 공동체에 의해 형성되고 구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와 공동체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Sandel의 주장은 개인적 이익과 권리를 우선함으로써 경쟁과 대립, 갈등과 분열로 나아가는 자유주의를 넘어 공동선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적 삶의 자세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적 삶에의 참여적 자세를 일깨우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sup>43)</sup>

### ③ C. Taylor

Taylor는 자유주의 전반에 걸친 비판을 개진한다기보다는 그것의 일부인 ‘원자론적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공동체주의와의 조화점을 찾고자

---

43) 정세구 외(2002), 앞의 책, pp. 42-46.)

한다. 그는 원자론적 요소를 제거한 자유주의 윤리의 긍정적 잠재력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인다.<sup>44)</sup>

한편, Taylor는 ‘근대성(modernity)’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부정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 한다.<sup>45)</sup> 그는 ‘개인주의’가 근대성의 중요한 일부임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개인주의의 지향이 가져온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즉, 현대인들은 인간에 대한 원자론적 개념과 개인적 자율성, 평등한 권리, 삶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개인적·주관적 해석, 인간의 자율적 의지와 선택의 자유 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의 의미 있는 생활을 통해 보다 큰 선을 이루고 자아를 완성해 나갈 수 있음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sup>46)</sup> 이렇듯 Taylor는 개인주의의 원자화가 끼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공동체의 연대성 파괴를 우선적으로

---

44) Taylor는 자유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하고, 공동체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해 이중적 측면을 갖고 있다.(심성보(1995), 앞의 논문, p.9)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가 개인주의의 과도한 성장으로 인해 소멸되어간 공동체의 정체성과 도덕적 터전의 뿌리의식에 대해 보존의 의사를 표명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를 공동체주의자로 분류한다.

45) Taylor가 말한 근대성의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성의 결과로 나타난 개인주의는 ‘의미성’에 대한 사고를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웃과 사회에 대한 ‘보살핌’의 관심을 사라지게 했다. 이러한 오늘날의 사회는 자기중심시대, 자기도치시대, 과잉허용사회로 포장되었다. 둘째, 근대시대의 도구적 이성은 비인간화를 초래하였다. 도구적 이성은 합리성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목적에 대한 사고를 둔감하게 한다. 이는 계산적 합리성, 최대의 효율성과 결합하여 최대의 산출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람의 삶을 이끄는 비인격적 메커니즘을 과대화 시켰다는 지적이다. 셋째, 개인주의와 도구적 이성의 절대화가 정치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광범위한 정치참여를 축소시키고 시민의 정치적 통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개인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자유주의가 오히려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다.(위의 논문, pp.49-51)

46) 정세구 외(2002), 앞의 책, pp.50-51.

뽑는다.

Taylor는 이러한 근대 문명의 핵심적 사고인 개인주의의 위험과 도구적 합리성이 초래한 비인간화, 또 그로인한 의미 상실을 극복할 윤리적 대안으로서 ‘공동체’ 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그는 현대 자유주의 사회의 병폐는 공동체의 ‘정통성’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진단한다. 한 사회의 정통성이란 그 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종의 태도와 신념을 뜻하는데, 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해 잘 알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지는 규율과 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성립한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현대적 정체성, 즉 인간 본성과 자유, 합리성<sup>47)</sup>, 그리고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능력감<sup>48)</sup>에 대한 바른 관점과 태도를 지니지 못함으로써 현대 자유주의 사회의 위기가 야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sup>49)</sup>

이처럼 Taylor는 현대 자유주의의 ‘원자론적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인적 자유와 발전을 보장한다고 믿는다. 즉,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보다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사회 이전에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관점에 의거하여 인간이 지니는 목적들의 사회적 기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개인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존재한다는 가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

---

47) 여기서의 합리성은 도구적 이성에 의거한 계산적 합리성과 최대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건전하고 규율있게 그리고 통찰력 있게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48) 시민으로서의 능력감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전체 공동체의 목적과 공동선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개인적 완성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49) 정세구 외(2002), 앞의 책, pp.49-51.

하고 있는 것이다.<sup>50)</sup>

#### ④ M. Walzer

Walzer는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인간관을 비판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정의이론을 어떻게 구성하고 옹호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롤즈와 생각을 달리하며 나름의 이론을 펼쳐 나갔다. 정의와 관련된 Walzer의 핵심주장은 다음과 같다.

상이한 사회적 선은 상이한 이유에 입각하여, 상이한 절차에 따라, 그리고 상이한 주체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회적 선에 대한 상이한 이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 상이한 이해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필연적 소산이다.<sup>51)</sup>

Walzer의 이러한 주장은 각 사회의 선은 그것이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상이한 선은 상이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며, 각 영역마다 그에 적합한 특수한 분배 장치가 들어있다.

---

50) 이러한 Taylor의 주장은 인간은 자기 해석적 동물이라는 그의 견해에 기초해 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기반에서 도출되는 선관념에 대한 지향과 애착에 그 자신의 정체성이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뜻한다. 인간 자아의 정체성은 자아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대상들과 상황들에 부여하는 의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S. Mulhall & A. Swift,(2003), 앞의 책, pp.153-156)

51) M. Walzer(1983), *Spheres of Justice*, New York: Basic Books ; 이지현(1997), 앞의 책, p.87.

그러므로 정의로운 분배는 관련된 선의 특수한 원리를 찾아 그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다.<sup>52)</sup> 그리고 그것은 특정 공동체 내에서의 공유된 이해와 그 구성원들이 사회적 선을 배분하는 방식에 기초하여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Walzer의 이러한 관점은 정의와 공동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선이나 재화는 그 의미와 가치가 진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 창조되는 것이며, 그만큼 지극히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sup>53)</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Walzer는 롤즈의 방법론적 추상성을 비판하면서 선-특수적(good-specific)이고 문화-특수적(culture-specific)인 분배원리를 주장한다.<sup>54)</sup> 그는 롤즈의 정의 이론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특수성을 간과했다고 말한다. 롤즈는 모든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일차적인 혹은 기본적인 선들이 있다고 보는데, Walzer는 그러한 선은 추상적 사고의 산물에 불과하고 특정한 분배 문제를 다룰 때에는 전혀 효용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롤즈의 이론은 공동체의 문화·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사회적 선과 그것의 분배

---

52) 위의 책, pp.87-88.

53) 정세구 외(2002), 앞의 책, p.52.

54) 특수성과 관련된 Walzer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주의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의 주장처럼 특수한 사회적 의미에 충실하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사회적 의미가 통합적이고 위계적인 사회 속에서의 정의는 불평등 편에 서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Walzer는 일반적 지침과 구체적 지침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일반적 지침은 사회적 의미를 존중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 지침은 상이한 선은 상이한 이유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이지현(1997), 앞의 책, pp.96-98.)

가 다르게 이해됨을 간과한 채 정의와 권리 이론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체를 경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한다.<sup>55)</sup>

Walzer의 이론이 롤즈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가 자유주의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동체주의자로 분류하는 이유는 그가 정의를 특수한 사회적 의미와 연관지어 이해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공동체주의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도출한 공동체주의의 개념범주

지금까지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에 대해서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이 모두 자유주의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판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자유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해석은 약간씩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 논지로 각자의 이론을 풀어나간다.<sup>56)</sup>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공동체주의라는 하나의 틀로 묶을 수 있는 근거로서의 유사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구체적이고 공동체지향적인 인간관에 기초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즉 네 사람 모두 인간은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

---

55) 위의 책, pp.88-96.

56) 이를테면, MacIntyre와 Taylor는 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인간의 자아인식과 행위 및 실천적 추론에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있고, Sandel은 훨씬 제한적인 시각에서 공동체에 대한 근원적인 애착이 인간 선의 중요한 한 종류라는 견해만을 피력한다. 그리고 Walzer는 단지 정의, 그리고 정의의 주체보다는 객체에 관한 실천적인 추론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공동체에 호소하고 있다.(S. Mulhall & A. Swift(2003), 앞의 책, p.215)

화·언어와 본질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개인을 사회와 분리시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관점을 중심으로 단합해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공동체주의적 인간관은 개인은 사회에 우선하여 존재한다고 보는-그리고 개별성, 자율성, 독립성이 강조되는-자유주의적 인간관과는 반대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공동체주의 이론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공동체에 의한 구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강조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하면, 개인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와 매우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가진다. 공동체의 전통, 역사, 문화, 공동의 신념이나 태도 등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구성적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회와 분리된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부정한다.

개인은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등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② 공동선의 개념 강조

공동체주의적 사회에서의 공동선이란 그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가치있는 삶에 관한 실질적 견해를 의미한다.<sup>57)</sup> 이는 사람들의 선호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

---

57) 이지현(1997), 앞의 책, p.126.

동체의 삶의 방식과 부합되는 가치를 선택하고 그것과 배치되는 가치는 버릴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공동선은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협동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것을 말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선의 실현이 곧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실존 목적을 달성시켜줄 토대가 된다고 믿는다.

### ③ 완전주의적 국가관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 문화, 공동의 신념, 합의된 규칙과 절차 등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배경이자 자유 실현을 위한 합의된 약속이므로 개인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존중할 만한 가치로운 삶의 방식들은 국가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가 가치있는 삶의 방식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국가 완전주의에 대한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sup>58)</sup>

### ④ 성원의식과 연대감의 강조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성원의식과 연대감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 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보완과 연대감, 배려심, 협동의식 등은 바람직한 공동체의 이

---

58) 완전주의적 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J. Raz는 시민들이 간섭과 편견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틀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간주하기보다는, 국가가 특정한 삶의 방식들을 장려하고 여타의 것들을 단념토록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S.Mulhall & A. Swift(2003), 앞의 책, p.428)

상을 제시해 주는 감정적 요소이다.

### 5) 공동체주의 교육관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 즉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 의미로부터 정체성이 형성되는 인간을 가정하면서, 공동체의 성원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의 자아 발전과 자유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는 관점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개인은 공동체의 언어나 역사, 문화 등의 범주 안에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의 이러한 인간관이 교육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는 첫째, 교육이 상호주관성이나 공동의 맥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교육 당사자들 간에 공유된 의식이나 사고체계가 존재할 때 가능해진다. 공통된 언어의 사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호관련성이나 공동의 맥락을 설명함에 있어 공동체주의는 구성적 공동체의 개념이나 간주관적 자아의 개념을 제시한다. 즉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의하여 일부 구성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도 정체성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련성이 교육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된다.

두 번째 시사점은,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이나 태도-이를테면 문화, 역사, 전통 등의 요소-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필요로 하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어떤 것을 교육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자체가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아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육성하는 것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sup>59)</sup>

따라서 공동체주의적 교육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박애(Fraternity)와 공동체의 정의에 의해서 그 이상을 실현하는 좋은 시민성(Good Citizenship)을 육성하는 것”이다.<sup>60)</sup>

그렇다면 민주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좋은 시민성’이란 무엇인가? 민주 공동체의 시민에게 요구되는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전통에 대한 헌신, 자아 발달의 한 형식으로서 시민의 덕목, 정치적 우정, 민중 조직에 있어서 공동의 비전과 의지의 형성 등을 포함한다. 즉 민주 공동체의 시민은 자기의 이익보다는 공동선을 추구하고, 공공 정책의 수립을 위해 타인과 단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여기서 말하는 시민성은 ‘덕’과 ‘참여’를 의미한다.<sup>61)</sup>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 MacIntyre는 ‘양식 있는 공민’을 길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sup>62)</sup>

첫째, 학생들에게 이성적 토론과 논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

59) 전제아(1991), 앞의 논문, pp. 61-64.

60) 심정보(1995), 앞의 논문, p.130.

61) 이지현(1997), 앞의 책, p.74.

62) 심정보(1995), 앞의 논문, pp.47-48.

부여하고 이를 습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공민의 한사람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의식 있는 공민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자각하고 공동체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지성적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특정한 주제에 대한 논쟁에 있어 그 논쟁의 승패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합의하고, 그 기준에 의해 논쟁의 결과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쟁을 종결짓는 기준은 지역적 관습과 관례를 참조하여 도출해 낸다. 이는 회의주의나 독단주의에 빠지지 않고 논쟁의 중착점을 분명히 찾아내는 토론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공동체의 관습과 습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관습과 습관은 완성적인 결과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양식 있는 공민에 의한 해석적 이해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은 사회의 공유된 신념과 태도라 할지라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적으로 극복하려는 자세를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MacIntyre의 제안에 따라 공동체주의 교육을 정리하면, 공동체주의 교육은 공동체의 전통이나 문화, 사회적 관습의 전수를 교육목적으로 하고, 교육 방법에 있어서 토론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의 합의된 가치를 수용하고 스스로 내면화시키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하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 3.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개념범주 - 분석의 이론적 틀

지금까지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는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것으로 교과서 분석을 위한 배경지식과 준거를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여기서는 앞서 다루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사상의 이론적 틀-개념범주-을 정리함으로써 다음 장에서 진행될 교과서 분석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서 고대 사회로부터 근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약간씩 모습을 달리하며 이어져 왔다. 따라서 어떤 한 시기나 학자에 국한된 지역적인 설명이나 규정이 그 전체 의미를 포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각 사상의 준거 이론을 정하고 그로부터 각각의 개념범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유형화하고, 개념의 다의성을 극복하여 어느 정도 이론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표-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개념범주(분석의 이론적 틀)

|      | 개념 범주 <sup>63)</sup> |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관련 내용 영역  | 구체적 관련 용어                                       |
|------|----------------------|--|---|
| 자유주의 | 개인적 권리의 우선성          | [항목1]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의 보장  | 자유, 권리, 인권, 기본권, 평등                             |
|      | 개인주의적 인간관            | [항목2] 사회에 우선하는 개인<br>[항목3]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br>[항목4] 사적이익 추구 보장 | 사적 이익의 추구,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유 재산권, 자아실현, 다원성, 사회명목론 |
|      | 반완전주의적 국가            | [항목5] 제한적인 국가권력  | 사회계약설, 국가권력의                                    |

|       |                       |   |  |
|-------|-----------------------|---|--|
|       |                       | [항목6] 국가의 형성과 의미, 사회계약설<br>[항목7]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 체제                                   | 한계, 소극적 국가, 야경 국가, 국가의 중립성, 자유방임적 국가관, 시장경제체제                              |
|       | 개체적·합리적·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  | [항목8]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br>[항목9] 자율적 선택 강조   | 다원주의, 선택의 자유, 개성존중   |
| 공동체주의 | 공동체에 의한 구성적 존재로서의 인간관 | [항목10] 개인에 우선하는 사회<br>[항목11]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 존중 및 전통 문화의 계승 강조<br>[항목12] 합의된 법과 규칙 준수 | 전통, 역사, 문화, 공동의 신념 존중<br>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형성과 발전,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 사회실재론, 사회통합 |
|       | 공동선의 개념 강조            | [항목13] 사적 이익 추구의 제한<br>[항목14] 공익의 실현<br>[항목15] 국가발전을 위한 개인의 노력<br>[항목16] 사회 통합    | 지역 이기주의 지양, 재산권 행사의 한계,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의 제한, 공공이익, 공동선                        |
|       | 완전주의적 국가              | [항목17] 국가권력의 강제성<br>[항목18]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속과 공권력<br>[항목19] 국가주도의 계획 경제 체제            | 적극적 국가관, 복지국가, 공권력, 계획경제체제, 국가권력의 강제성 및 구속성, 행정 국가화 현상, 거대정부               |
|       | 성원의식과 연대감의 강조         | [항목20] 인간의 사회성<br>[항목21] 사회문제에의 적극적·자발적 참여<br>[항목22] 공동체 의식, 협동 의식, 상호 존중         | 양보, 배려, 관용, 성원의식, 연대감,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규명, 참여, 공동체의 덕성, 애국심, 우 리 의식, 책임 의식     |

63) 개념의 범주화를 위한 준거 이론은 앞서 연구 방법의 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다. 자유주의는 J. Rawls의 정의론에 근거하였고, 공동체주의는 대표적인 공

## IV.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 분석

### 1. 7차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 교육의 목표 및 교육방향

#### 1) 사회과 교육의 목표

사회과는 사회현상에 관련된 제반 지식을 생활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교과목인 만큼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과교육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경수(2004)에 따르면 사회과교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사회과교육은 사회생활에 관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학생의 요구에 의하여 학습하고,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형성하여 국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교육하려는 학교의 교과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회과교육은 바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이나 ‘시민성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sup>64)</sup> 이렇듯 사회과는 개인과 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를 직접적인 내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교육내용이나 교육목

---

동체 주의자로 불리우는 4명의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공통점을 도출하였다.

64) 차경수(2004), 「현대의 사회과교육」, 서울: 학문사, pp.19-20.

표에 있어서 사회적 또는 국가적 목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교육의 목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술될 수 있겠지만 그 중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회과교육의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교육목표이다.

민주 시민의 자질로서 요구되는 것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는 꼽히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이념과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실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무수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과교육의 목표는 우리나라 교육법에서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교육법 1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케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 교육법 제94조 2항은 사회과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시켜 도의심과 책임감, 공덕심과 협동정신을 기른다. 특히 향토와 민족의 전통과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민족의식을 양양하며 독립자존의 기풍을 기르는 동시에 국제협조의 정신을 기른다.

우리 나라의 사회과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우선 개인과 사회 및 국가

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감이나 협동정신과 같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향토와 민족의 전통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하고 나아가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개인을 추구한다. 그러나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므로 국제 평화에 이바지하는 세계시민의 양성 또한 강조하고 있는 바이다.<sup>65)</sup>

이러한 사회과교육의 목적은 주로 공동체주의적 교육목적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공교육’이라는 교육제도 자체가 국가공동체 내의 개인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교육이 공교육에서 다루지는 교과목 중 하나라고 한다면 그 교육내용이나 교육 목표에 있어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활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2) 7차 교육과정의 교육 방향

7차 교육과정은 세계화·정보화·개방화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 창의적 사고로 사회 발전을 주도할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 육성을 기본 목적으로 하여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sup>66)</sup>

---

65) 차경수(2004), 앞의 책, p.60.

66) 교육부(1997), 「사회과 교육과정」 참고.

-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②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④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⑤ 민주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를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지식 습득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과”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른다.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교육 목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탐구 능력, 종합 이해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참여 능력 등 새로운 교육목표를 추가하였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

을 기른다는 공동체주의적 교육목표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종전과 달리 제7차 교육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과정운영에 있어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했다거나, 평가방법에 있어서 수행평가를 새롭게 강조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교육관과 일정 부분에서 공통적인 의미를 갖는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은 학생의 자율적 선택과 교육에 있어서의 자유를 강조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이러한 피교육자의 필요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평가 방법에 있어서 수행평가의 도입은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형태의 교육과 일률적인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 수행평가의 도입에 따라 학생들은 스스로의 학습과정과 학습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육적 경험과 평가의 틀은 결과의 수치화에는 유리했지만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한 교육적 경험 및 성과를 안겨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개별적인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정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방법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기 주도 학습의 확대와 수행평가의 실시는 이러한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 3) 사회과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향

크게 5가지 모형으로 분류되는 ‘사회과교육의 본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과교육의 성격이나 지향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5가지 모형은 다음과 같다.<sup>67)</sup>

첫 번째, 문화유산 전달모형은 사회과교육을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문화적 유산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모형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전수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 모형은 공동체주의 교육에서의 강조점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에 따르면 사회의 문화적 유산은 개인과 동떨어진 별개의 가치체계가 아니라 개인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아의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공동의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것은 곧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아실현을 돕는 교육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과학 모형이다. 이는 각종 사회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사회과교육의 본질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모형에서 중시되는 것은 사회과학의 지식, 개념, 일반화, 이론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가치중립적인 사회과학적 탐구력을 함양하는 것인데, 주로 교육의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 모형은 자칫 시민교육적인 차원이 소홀히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사회과교육의 본질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탐구력을 함양시킨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과연 학생들이 그것을 스스로

---

67) 차경수(2004), 앞의 책, pp. 22-23.

선택하고 원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 교육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의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반성적 사고 모형인데, 이는 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성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사회과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사회과학적 지식체계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고, 내용의 실체보다 방법론에 너무 치우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성적 사고 모형은 공동체주의적 가치와 자유주의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듯한 형태를 보인다. 이를테면, ‘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해결’이라고 하는 교육목표 설정은 이미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관련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공동체주의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육의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사회비판 모형이다. 이는 과거의 전통, 현재의 이론과 실천, 제도, 문제해결과 사고방식 등을 재검토하고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과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모형은 문화유산의 전달이나 사회과학교육 등과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MacIntyre는 비판적인 능력은 ‘의식 있는 공민’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회비판능력은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개인의 권리 실현과 공동체주의가 지향하는 사회발전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다섯 번째는 개인발달 모형으로서, 적극적인 자아개념과 자아의 발달 및 성취, 개인적 효율성, 개인의 행복한 생활능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이다. 개인발달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사회성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 모형은 개인적인 가치들을 중요시 하고 이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과교육의 본질과 가치지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 본 다섯 가지 모형 중 ‘문화유산전달모형’은 전형적으로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사회과교육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개인발달 모형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강조하거나 사회 공동의 가치를 전달하기 보다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의 가치를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교육관을 대거 반영하고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사회과 교과서 상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 1) 분석의 접근방법

#### ① 분석 TEXT 선정

‘사회과’는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지식 및 가치·태도를 습득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 교과목이다.<sup>68)</sup> 다시 말해, 사람들과 더불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지식, 가치, 기능을 전달하

---

68)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 p.15.

는 과목이 바로 사회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과는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의 바람직한 관계설정과 가치 추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과목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사회과의 본질을 실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과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교육목표와 학생을 결부시키는 매개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수·학습 자료이다.<sup>69)</sup>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세계에 의미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구성된 것”이라는 M. Green의 설명에 입각해서 볼 때, 사회과 교과서는 학생들이 자기가 속한 사회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어떤 지식을 얻게 되는가와 관련하여 안내등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70)</sup> 따라서 분석 Text로서 교과서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일반사회 영역 교과서를 분석 text로 삼았다. 일반사회 영역의 교과목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 사회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과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여러 종의 검정 교과서 중 각 과목당 2종 교과서를 선택하여 위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내용분석을 하고자 한다. 정치 영역은 대한교과서와 법문사에서 출판한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였고, 경제 영역은 대한교과서와 두산, 사회·문화 영역은 대한교과서와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

69)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외(2003),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일반사회]」, 서울: 교육과학사, p.357.

70) 사회교육연구회(2001), 「智識과 思考」, 서울: 학문사, p.371.

## ② 분석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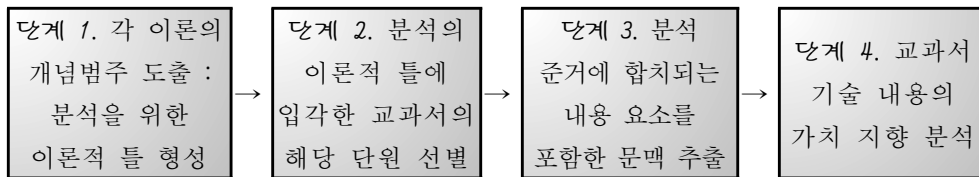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교과서 분석을 위한 과정은 총 4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개념범주, 즉 이론적 틀을 정함으로써 분석의 준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앞서 2장에서 다룬 바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마련된 ‘분석의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각 이론의 개념범주에 속하는 내용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단원을 선별해 내는 것이다. 이는 교과서 중단원을 기본 단위로 한다.<sup>71)</sup> 세 번째 단계는 이전까지의 단계를 거쳐 선별된 중단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 준거로 제시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개념범주 및 그에 따른 세부 항목을 내용요소로 하고 있는 문맥을 찾아내는 것이다. 여기서 단순히 각 교과 영역의 지식체계를 전달하는 내용이나 이론적 설명이 나열된 부분은 내용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교과서의 문장진술 형태는 보통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전달하는 형태로 구분되며, 이는 모두 교과서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교육목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교과에서 다루는 지식 영역보다는 성취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기능상의 변화나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태도적인 측면에 비중을 더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가치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가치 선택의 문제와 맞물려 있을 뿐더러, 본 논문의 연구

---

71) 교과서 중단원을 기본단위로 하는 이유는 모든 검정교과서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주제의 최소단위이기 때문이다. 원래 주제 제시의 최소단위인 소단원의 경우에는 검정교과서별로 다르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한 단원 선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목적 역시 이러한 가치 중 교과서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진단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앞 단계를 거쳐 뽑아낸 교과서 상의 기술 내용 즉, 해당 문맥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해당 기술 내용이 어떤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가?’, ‘특별한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대비되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단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교과서 분석의 단계



③ 각 이론의 개념범주(분석의 이론적 틀)에 입각한 분석 단원 선정

<표-3> 각 이론의 개념범주에 입각한 교과서 분석 단원 선별

|      | 개념 범주 <sup>72)</sup><br>(이론적 틀) | 관련 내용  | 사회과 교과서에서의<br>해당 단원:<br>주제 관련성을 중심으로                                  |
|------|---------------------------------|--|---|
| 자유주의 | 개인적 권리의 우선성                     | [항목1]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의 보장  | 정치교과서<br>I-2.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br>III-2.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 개인주의적 인간관                       | [항목2] 사회에 우선하는 개인<br>[항목3]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br>[항목4] 사적 이익 추구의 보장 | 사회·문학교과서<br>II-1. 개인 생활과 사회구조의 탐구<br>경제교과서<br>II-1. 시장의 원리와 시장 가격의 기능 |

|       |                       |   |   |
|-------|-----------------------|---|---|
|       | 반완전주의적 국가             | [항목5] 제한적 국가권력<br>[항목6] 국가의 형성과 의미, 사회계약설<br>[항목7]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 체제                 | 정치교과서<br>I-1. 국가와 정치 생활<br>경제교과서<br>I-3.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
|       | 개체적·합리적·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  | [항목8]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br>[항목9] 자율적 선택의 강조  | 사회·문화 교과서<br>V-3. 가치관과 사회 발전  |
| 공동체주의 | 공동체에 의한 구성적 존재로서의 인간관 | [항목10] 개인에 우선하는 사회<br>[항목11]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 중시 및 전통 문화의 계승 강조<br>[항목12] 합의된 법과 규칙 준수 | 사회·문화 교과서<br>II-1. 개인 생활과 사회구조의 탐구<br>사회·문화 교과서<br>IV-1. 인간의 문화 창조<br>IV-2. 문화의 속성과 일상 생활의 이해<br>IV-3. 문화 변동과 민족 문화의 발전 |
|       | 공동선의 개념 강조            | [항목13] 사적 이익 추구의 제한<br>[항목14] 공익의 실현<br>[항목15] 공동체 발전을 위한 개인의 노력<br>[항목16] 사회 통합  | 경제교과서<br>III-1. 바람직한 소비 선택<br>III-2.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기업 윤리  |
|       | 완전주의적 국가              | [항목17] 국가권력의 강제성<br>[항목18]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속, 공권력<br>[항목19] 국가주도의 계획 경제 체제            | 정치교과서<br>V-2. 현대 민주 사회의 과제<br>경제교과서<br>I-3.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
|       | 성원의식과 연대감의 강조         | [항목20] 인간의 사회성<br>[항목21] 사회문제에의 적극적·자발적 참여<br>[항목22] 공동체 의식, 협동 의식, 상호 존중         | 정치교과서<br>I-3. 민주 정치의 발전<br>II-1.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br>사회·문화 교과서<br>III-2. 농촌과 도시 사회의 분석<br>V-3. 가치관과 사회 발전                   |

## 2) 각 영역별 내용분석

### 가. 정치 영역

‘정치’ 과목은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과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개설된 심화 선택 과목이다. 이는 사회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이루는 과목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능력과 덕성을 두루 갖춘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 시민은 “상이한 이익 입장이나 의견에 대한 관용, 소수 의견의 존중, 대화와 타협에 의한 갈등 해결의 자세, 규칙 준수와 준법 정신 등과 같은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지니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책임 있게, 그리고 정당하게 실현하는 능력을 지닌 자유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을 말한다.<sup>73)</sup>

‘정치’ 과목의 교과 내용은 주로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정치적 문제의 합리적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정치 생활의 경험들을 포함한다.<sup>74)</sup>

#### (1) 단원의 구성 및 주요 학습 내용

---

72) 각 이론의 개념범주를 도출해 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제2장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참고할 것.

73)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 p.234.

74) 위의 책, p.236.

정치교과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동태적인 과정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정치적 쟁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학습 경험을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Ⅱ. 정치과정과 참여’ 단원이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Ⅰ. 시민 생활과 정치’의 핵심적 내용인 민주주의는 ‘정치과정과 참여’의 규범적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Ⅲ. 우리 나라의 민주정치’의 내용은 ‘정치과정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한국 정치의 제도적 틀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부분이다. ‘Ⅴ. 정치 발전의 과제’는 ‘정치과정과 참여’가 지향할 바를 다루는 내용 영역이며, ‘Ⅳ. 국제 사회와 정치’ 단원은 정보화·세계화 등의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창조적으로 주도하는 미래 시민, 세계 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현실성 있으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sup>75)</sup>

<표-4> 정치 교과서의 단원구성 및 주요 내용<sup>76)</sup>

| 대단원               | 중단원             | 주요학습내용   |
|-------------------|-----------------|--|
| Ⅰ.<br>시민생활과<br>정치 | 1. 국가와 정치 생활    | 국가의 성격, 국가의 형성, 정치의 의미, 정치의 의의와 기능, 권력의 정당성과 합법성, 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                                     |
|                   | 2.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 민주주의의 다양성,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이념, 자유와 평등, 민주 정치의 목적, 국민주권, 대의제와 지방자치제, 입헌주의, 권력분립 |
|                   | 3. 민주 정치의 발전    |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과 의미, 시민혁명과 민주 정치의 등장, 근대 민주 정치 사상의 배경, 참정권의 확대, 대의정치와 시민참여                            |
|                   | 4. 민주 정치와 정부    |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 대통령 중심제와   |

75) 위의 책, pp.236-237.

|                       |                    |  |
|-----------------------|--------------------|--|
|                       | 형태                 | 의원 내각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
| II.<br>정치과정과<br>참여    | 1. 현대 정치 과정과<br>참여 | 정치참여의 의미와 중요성, 참여에 의한 공공정책 결정,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방법, 올바른 정치 참여 자세, 참여의 주체                                   |
|                       | 2. 선거와 참여          | 민주 정치와 선거, 선거 제도와 선거 방식, 선거 문화와 민주 정치 발전   |
|                       | 3. 정당과 이익 집단       | 정당과 민주 정치, 이익 집단과 민주 정치, 시민 단체와 민주 정치  |
|                       | 4. 여론과 언론          | 여론과 민주 정치, 여론과 대중 매체   |
| III.<br>우리나라의<br>민주정치 | 1. 헌법의 이념과<br>원리   | 대한민국 건국 이념,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의 자세, 민주주의와 인간 존중, 현실에서의 인권보호, 국민 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와 평화통일 지향             |
|                       | 2. 국민의 권리와<br>의무   | 기본권의 성격, 기본권 제한의 한계,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타인의 권리 존중, 헌법상 국민의 의무, 권리에 따른 책임                   |
|                       | 3. 통치 기구           | 국회와 입법 과정,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 헌법 재판소, 지방 자치  |
| IV.<br>국제사회와<br>정치    | 1. 국제 사회의 발달       | 근대 국제 사회의 형성과 전개 과정, 국제 사회의 특징과 주권의 의미, 국제 사회에서의 행위 주체   |
|                       | 2. 국제 관계와<br>국제 기구 | 국제법의 특징과 종류, 국제정치 체계, 국제 기구의 형성과 발전과정, 국제연합의 역할과 과제  |
|                       | 3. 국제 관계의 변화       | 냉전 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세계 질서, 국제 관계 속에서의 지구촌 문제  |
|                       | 4. 우리 나라의<br>국제 관계 |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제 관계, 외교의 중요성과 과제  |
| V.<br>정치발전의<br>과제     | 1. 정치 발전의 의미       | 정치 발전의 중요성,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하여  |
|                       | 2. 현대 민주 사회의<br>과제 | 현대 사회의 갈등과 해결 방안, 자유방임주의의 문제점과 복지정책, 행정 국가화 현상과 기본권 침해, 국민복지와 기본권의 조화, 지구촌시대의 국제협력, 자율적 참여의 중요성과 자세, 정보화와 그 영향 |
|                       | 3. 민주적 정치 문화       | 민주적인 생활양식, 참여로 만들어지는 사회, 정치 문화와 정치 사회화,  |

|  |              |                                |
|--|--------------|--------------------------------|
|  | 4. 민족 통일의 과제 | 국제 정치와 통일 문제, 남북 관계의 현황과 통일 노력 |
|--|--------------|--------------------------------|

(2) <표-1>각 이론의 개념범주 틀을 이용한 교과서 내용 분석

▶ I -1. 국가와 정치 생활, V-2. 현대 민주 사회의 과제

: [항목5] 제한적인 국가권력, [항목6] 국가의 형성과 의미, 사회계약설, [항목17] 국가권력의 강제성, [항목18]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속과 공권력과 관련하여...

‘국가와 정치 생활’에서는 국가의 성립 과정과 국가 권력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국가 권력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 개인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국가권력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상이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우선 국가의 형성 배경과 관련하여 교과서에서는 ‘사회계약설’의 내용을 탐구활동 등으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오늘날 국가의 성립에 대해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시민들 사이의 계약을 통해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사회 계약설이다...[탐구활동] 흡스...‘만인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는 개인은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기가 어려우므로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의 모든 권리를 국가라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것이다...로크...계약을 통해 성립된 국가는...만일, **국가가 계약을 위반하고 인간들의 자유를**

76) 김왕근 외(2002), 「고등학교 <정치> 교사용 지도서」, 법문사. 참고.

침해한다면 시민들은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루소...시민은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통해 국가를 건설한 것이다...(대한교과서, 정치, pp.12-13) ▷[항목6] 관련

국가 형성의 배경을 ‘사회계약설’로 보는 견해는 롤즈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의 이론적 근간(根幹)이었다. 국가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만들어 낸 합의체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들의 견해는 국가보다 앞선 존재로서의 개인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성립과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은 자유주의 이론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성격 및 기능과 관련해서는 다분히 공동체주의적 입장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서술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다른 사회 집단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권력을 독점한다는 것이다...국가는 그 영역 안에서 모든 개인과 집단에 우선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군대와 경찰, 법과 제도 등을 통해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권력을 독점하고 강제력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이를 통해 공동체의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교과서, 정치, p.14-15) ▷[항목 16, 17, 18] 관련

[탐귀 국가의 의미와 특징...국가는 일정한 영역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법문사, 정치, p.12) ▷[항목 17, 18] 관련

이처럼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는 개인과 집단에 우선하는 권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권력은 독점성과 강제성을 띤다고 설명한다. 이는 국가공동체가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외부적 힘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

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로서의 국가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리고 국가권력이 사회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설명 역시도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의 강제력이 행사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공동체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무조건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행사가 공동체의 안정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안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져야 함을 뒤이어 강조하고 있다. 이는 권력 형성 과정에서부터 실제적인 권력 행사 방법에 이르기까지 정당성을 확보해야함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 권력 행사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할 때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보호될 수 있다는 공동체주의적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 민주 사회의 과제’ 단원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발전적인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우리의 교과서 상에서 어떠한 형태의 국가-혹은 공동체-를 지향하는지 비교적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단원의 전체적인 서술 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사회통합’과 ‘복지국가’의 실현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사회의 분화, 가치의 다원화, 빠른 사회 변동으로 인해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 간에 대립과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적절히 해결** 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은 민주 사회가 성숙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대한교과서, 정치,

p.236) ▷[항목16] 관련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수많은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 단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갈등이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법문사, 정치, p.217) ▷[항목16] 관련

이와 같은 교과서 내용을 보면 다원화된 개인의 지나친 이익 추구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빚어 낸 갈등과 대립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이라는 공동체 주의적 가치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사회통합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자료 5] **다원성의 인정**...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치관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의 배양**...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공동체 의식의 배양**...**사적 이익의 추구가 공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분배 정의의 실현...분배 구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부를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부를 공익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대한교과서, 정치, p.237) ▷[항목 3+13, 14, 22] 관련77)

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사적 이익 추구를 보장한 것은 자유주의에 입각한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양한

---

77) 관련 항목을 표기함에 있어 ‘+’ 기호는 상반되는 가치 즉, 자유주의적 내용 요소와 공동체주의적 내용요소가 함께 설명되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측면에 있어서 사회적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부작용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공동체주의적 가치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근대 이후 자유 방임주의 정책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이는 자유주의에서 요구하는 반환전주의적 국가와 대비되는 형태의 국가관이다. 이와 관련된 교과서 서술은 다음과 같다.

...자유 방임주의 사상에 따라, 국가는 최소한의 공무를 담당하는 최소 국가였고...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자유 방임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중략)...**자유 방임주의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특히,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법문사, 정치, p.220-221) ▷[참고 18]

만견

이처럼 교과서에서는 완전주의적 복지국가의 등장을 자유 방임주의가 갖는 한계와 연관지어 설명함으로써 복지국가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확대하는 일방적인 구조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에서도 국가의 완전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국민복지와 기본권을 조화롭게 실현시켜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sup>78)</sup>

---

78) 실제 교과서에서는 ‘행정 국가화 현상’(법문사, 정치, p.222) 또는 ‘행정부의 강화’(대한교과서, 정치, p.241)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완전주의적 국가’라는 용어로 구분하도록 한다.

현대 국가에서는 국민 복지를 추구하면서 재산권 행사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다...(법문사, 정치, p.223)

... 행정부의 강화는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또, 행정부의 민간 부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중략)... 많은 나라들이 '작지만 강력한 정부'와 같은 목표를 내걸고 행정부의 기능을 조정하여 복지와 인권을 동시에 조화시키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대한교과서, 정치, pp.241-243) ▷ [항목 1+ 14, 18] 관련

이러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과서는 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현대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공동체주의에서 요구하는 완전주의적 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본권의 수호라는 자유주의적 가치 역시 함께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적 요소와 공동체주의적 요소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I -2.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III-2. 국민의 권리와 의무

: [항목1]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자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인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의 우선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원은 'III-2.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다. 여기서는 국가권력을 개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파악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기본권은 **천부 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국가 권력은 언제나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대한교과서, 정치, pp.142-143) ▷[항목 1] **관련**

...국가는 **천부적이고 초국가적인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또한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우리 헌법에서도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을 선언하고 있지만(제10조),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제2항)...우리 헌법에서는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제2항)”고 하여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법문사, 정치, pp.132-133)

교과서 상의 이러한 내용은 개인이 공동체에 대해 갖는 권리의 우선성을 나타낸다.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는 국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절대 불가침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유와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무와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제도 또는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다루는 ‘I -2.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서도 권리의 우선성과 관련된 서술을 찾아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가침, 불가양의 천부 인권을 지닌다.”는 관점에 근거한다...외부의 구속과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고 균등한 기회 속에서 능력에 따른 대우를 받는 것이 평등이라고 한다면...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은 곧 자유와 평등의 실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법문사, 정치, pp.27-29) ▷[항목 1] 관련

...자유권은 천부적인 권리이지만 원자화된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는 하나의 패러독스로 존재하며, 구속을 통하여 실현되는 특징을 지닌다.(법문사, 정치, p.30) ▷[항목 1+ 10, 20] 관련

...자유는 주장의 외부로부터의 구속이 없는 상태,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널리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리, 즉 '국가에의 자유'라는 의미로 발전해 왔다.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는 자유를 해치는 경우일 뿐이다...(대한교과서, 정치, p.32) ▷[항목 1] 관련

여기서 보이는 특이점은 소극적 의미의 '자유'개념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가 공유되어야 함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 곧 자유를 의미한다는 단순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때로는 구속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자유 실현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원자화된 개인의 배타적인 자유 추구가 초래할 혼란을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이러한 설명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겠다.

▶ I-3. 민주 정치의 발전, II-1.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

: [항목21] 사회문제에의 적극적·자발적 참여, [항목22] 공동체 의식, 협동 의식, 상호 존중과 관련하여...

‘민주 정치의 발전’ 단원에서는 고대 아테네에서 근대 시민 혁명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주정치가 발전해온 과정과 시민권의 확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가능케 했던 요소는 무엇이고,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봄으로써 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민주 정치를 가능케 했던 배경으로 ‘시민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보다 발전적인 민주 정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임을 알린다. 여기서 기본적인 전제를 이루는 것은 시민의 자유권의 확대가 곧 민주 정치의 발전을 뜻하는 것이라는 점과 시민의 참여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 정치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교과서 상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참여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의 품으로 되돌아갈 꿈을 품는다. 이들은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과 실천을 함께 하는 가운데 삶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대한교과서, 정치, p.48) ▷[항목21, 15] 관련

이처럼 교과서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절대적인 성격에 합의하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공동체주의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화된 개인들

의 파편적인 이익이 모여 사회적 이익과 사회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들이 많아질 때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사회 구성원들도 그 안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은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단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정치 참여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정치 참여 방법, 제도적 장치, 그리고 참여에 임하는 바람직한 자세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성원의식과 참여를 강조하는 교과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 정치는 시민들의 합리적 사고와 판단에 기초한 정치 참여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대한교과서, 정치, p.69) ▷[항목 21] 관련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각자의 견해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중략)...이러한 시민들의 참여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 정치 발전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대한교과서, 정치, p.74) ▷[항목 21] 관련

이처럼 시민들이 정치 참여 활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이자 민주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므로 마땅히 권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시민의 정치참여 활동이 개인의 배타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는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해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공동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정치 참여는 사회의 공공 문제에 관한 것으로,** 시민들 스스로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참여이다...(법문사, 정치, p. 64) ▷[**항목 21, 14**] **관련**

...시민의 정치 참여 동은 시민 의식을 향상시키고, 정책의 질을 높여 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참여는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공익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법문사, 정치, p.70) ▷[**항목 21, 14**] **관련**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 자체가 항상 민주적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시민 참여가 가져오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중략)...최근 우리 사회는 시민 참여의 **성화로 많은 민주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자기 집단의 이익과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시민 참여가 집단 이기주의로 변모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대한교과서, 정치, p.74) ▷[**항목 21, 14**] **관련**

...정치 참여의 **성화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 참여 과정에서 시민들이 공익을 고려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공동체의 발전 없이 구성원인 시민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대한교과서, 정치, p.75) ▷[**항목 14, 21, 15**] **관련**

이와 같이 정치 참여와 관련된 교과서의 서술구조는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는 개인의 이익 추구의 자유와 참정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그것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회 전체의 목표나 이익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의 발전이 전제될 때 개인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형적인 공동체주의자들의 견해라고 볼 수 있고, 교과서는 이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 나. 경제 영역

‘경제’ 과목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경제적 소양과 유능을 심화할 수 있도록 개설된 사회과의 심화 선택 과목의 하나이다. 경제 과목의 총괄 목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하나는 인지적 측면의 경제적 사고력, 의사 결정력을 신장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적 측면에서 경제 주체의 바람직한 경제 윤리 의식의 내면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리는 민주 시민 양성을 도모하는 것이다.<sup>79)</sup>

### (1) 단원의 구성 및 주요 학습 내용

<표-5> 경제 교과서의 단원구성 및 주요 내용<sup>80)</sup>

| 대단원                       | 중단원                  | 주요 학습내용  |
|---------------------------|----------------------|--|
| I.<br>경제 생활의 이해와 경제 문제 해결 | 1. 경제 생활의 의미         | 경제 생활이란 무엇인가, 경제 활동의 상호 의존 관계,   |
|                           | 2.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      | 경제의 근본문제, 경제적 선택의 기준,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경제적 선택   |
|                           | 3.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 계획 경제 체제의 특징, 자본주의 초기-자유 방임주의, 현대 자본주의-혼합 경제 체제, 경제 체제의 변화, 바람직한 경제 체제                   |
| II.<br>시장과 경제활동           | 1. 시장의 원리와 시장 가격의 기능 | 시장의 의미, 분업, 시장 경제의 효율성, 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 가격의 기능,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 주제, 이익추구의 원리, 공공재의 성격, 경제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기준 |
|                           | 2.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 시장의 수요와 공급,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
|                           | 3. 시장 기능의 한계와        | 시장 실패의 원인, 시장 실패에 따른 대응책,  |

79) 교육인적자원부(2001), 앞의 책, pp.256-257.

|                                | 보완 대책                | 정부 실패의 원인과 대책   |
|--------------------------------|----------------------|---|
| Ⅲ.<br>경제주체의<br>합리적<br>선택       | 1. 바람직한 소비 선택        | 가계의 소득 유형과 소득 격차, 가계 소비 지출의 유형과 저축률, 가계 경제 행위의 영향, 합리적 소비의 개념과 원칙, 불합리한 소비 지출 유형, 합리적 소비의 모순과 바람직한 소비 |
|                                | 2.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기업 윤리 | 기업의 생산 과정과 산업 분류, 기업의 생산 활동 변화, 기업의 이윤 추구 방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내용, 기업 윤리의 개념과 21세기의 기업 경영              |
|                                | 3. 책임 있는 재정 운용       | 정부의 경제 활동, 정부의 세입과 세출 활동, 정부의 경제 정책 판단 기준과 국민의 참여 방법  |
| Ⅳ.<br>국민<br>경제의<br>활동과<br>경제변동 | 1. 국민 경제의 흐름         | 경제 활동과 한국 경제의 위상, 경제 성장, 물가, 실업,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 분배  |
|                                | 2. 경제 성장과 안정화 정책     | 경기 변동과 양상, 경제 성장과 안정 요인, 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   |
| Ⅴ.<br>세계시장과<br>한국경제의<br>미래 전망  | 1. 국제 거래와 경쟁력        | 세계화와 우리 경제, 한국 무역의 미래, 국제 경쟁력의 강화   |
|                                | 2.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 미래 한국 경제의 과제, 통일로 가는 길, 통일이후의 한국 경제   |
|                                | 3. 인류 공동체와 경제 협력     | 21세기 인류 공동체의 경제 문제, 인류 공동체가 꿈꾸는 사회  |

(2) <표-1>각 이론의 개념범주 틀을 이용한 교과서 내용분석

▶ I-3.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 [항목7]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 체제, [항목19] 국가주도의 계획 경제 체제와 관련하여...

80) 김진영 외, 「고등학교 <경제>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참고.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단원에서는 여러 경제 체제의 특성을 비교하여 알아보고, 특히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탐구함으로써 이상적인 경제 사회의 모습을 살피고자 한다. 경제체제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객관적 입장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특정의 경제체제에 대한 편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 단원에서 역점을 두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가 우리의 경제 발전에 미친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고 이를 보완·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인 경제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자유주의·공동체주의의 이론적 틀에 입각해서 경제체제를 구분하면, 합리적인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추구를 으뜸의 과제로 여기고 이를 보장하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체제는 자유주의의 ‘반완전주의’로 대변될 수 있겠고,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계획경제체제는 공동체주의의 ‘완전주의’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교과서에서는 양 극단의 경제체제는 실존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두 경제체제가 혼합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시장 경제적 요소와 계획 경제적 요소 중 어느 것이 주를 이루는가에 따라 각각 다른 경제체제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장 경제에 근간을 두고 그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계획 경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경제체제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민 계급이 주도권을 장악한 근대 국가는 경제 동의를 자유를 강조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는 야경 국가관이 성립하게 되었다...(중략)...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를,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 체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 사유 재산의 철저한 보장, 개인적 이익 추구의 정당화, 자유로운 경쟁의 허용은...근대 시장 경제를 비약적으로

로 발전시켰다...사회 전체의 생산량은 증가하여...**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그러나 **지나친 경제 동등 자유는 심한 소득의 불평등을 가져와** 계급 간의 대립을 격화시 으며 거대한 독점 기업의 등장은 시장 경제 체제의 기본 원리였던 가격 기구를 마비시 다...(대한교과서, 경제, p.39-40) ▷[항목7, 4, 9+ 13] 관련

교과서 상의 이러한 설명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체제가 갖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혼합경제체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줌과 동시에 자유주의적 경제원리가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발적인 질서 유지에 익숙하지 못한 기업과 개인들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고 있으며, 이는 구성원 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두산, 경제, p.43) ▷ [항목 13, 14] 관련

...**한국 경제는 시장 경제 체제에 가까운 혼합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 성장을 추진해 다고 할 수 있다.(두산, 경제, p.40) ▷[항목 7+19] 관련

...**정부의 경제 동등은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경제 동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경제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었을 때 성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시장의 경쟁 원리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두산, 경제, p.144) ▷[항목 4+18] 관련

이처럼 교과서에서는 자유주의적 경제원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부분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혼합 경제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음을 알린다. 또 이러한 혼합 경제 체제의 등장이 자유 시장 경제를 대체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 체제

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 체제는 자유주의의 기초위에서 공동체주의와의 조화를 꾀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 II-1. 시장의 원리와 시장 가격의 기능, III-1. 바람직한 소비 선택, III-2.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기업 윤리
- : [항목4] 사적 이익 추구의 보장, [항목13] 사적 이익 추구의 제한, [항목14] 공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시장의 원리와 시장 가격의 기능’ 단원에서는 이익 추구의 원리와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되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자유주의 경제관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교과서에서도 개인의 이익 추구 활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경제 원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교과서 상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특화와 자유로운 교환** 등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살 수 있는 것은 제조업체의 봉사 정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 추구 행위 때문이다... (중략)...이처럼 생산자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하며, 소비자는 제한된 소득으로 가능한 큰 만족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이익 추구 행위 덕분에 수많은 제화와 서비스가 생산되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들의 이익 추구 행위는 **사유 재산권의 보장**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두산, 경제, p.53) ▷[항목 4, 7] 관련

이처럼 교과서에서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 자율적 선택, 개인적 이익 추구하고 같은 지극히 자유주의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시장 경제 체제는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일정한 제한을 둬으로써 지나친 개인의 이익 추구가 가져 올 역기능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들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사회의 공동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대한교과서, 경제, p.55) ▷[**항목 4+14, 15**] **관련**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바람직한 소비 선택’ 단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합리적인 소비가 개인의 욕구 충족이라는 개인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개개인의 소비 행위는 각 가게는 물론 나아가 결국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각각의 소비 행위가 전체에 피해를 주지 않고 긍정적인 것인가를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중략)...**가계의 소비는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경제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두산, 경제, p.116) ▷[**항목 4+13, 14, 15**] **관련**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고 있다. 개인에게 유익한 선택이 공동체에 이익을 줄 수 없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소비 선택이 요구된다.** 오늘날 전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자원 고갈, 환경 오염, 빈부 갈등 문제 등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에 따른 소비 행위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소비 욕구를 절제하고, **윤리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소비 생 자세가 요구된다.**(대한교과서, 경제, p.107) ▷[**항목 13, 14, 15, 22**] **관련**

위의 서술에서는 개인의 소비 선택은 개인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공동체주의적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 합리성에 근거한 사적 이익 추구를 맹신하는 자유주의적 전통을 경계하는 듯한 내용은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기업 윤리’ 단원에서도 엿보인다. 효율적인 운영과 이윤의 극대화가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 역시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성을 추구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해야 한다...(중략)...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한편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두산, 경제, p.136) > [항목 13, 14, 15]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의사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해 집단과 기업이 속한 지역 사회 또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항상 고려하는 것이다. (대한교과서, 경제, p.121)

...기업을 윤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이 투명하고 공동체의 이익과 환경을 중시해야 한다...(대한교과서, 경제, p.124) > [항목 13, 14, 15] 관련

이처럼 교과서에서는 개인적 이익 추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가치가 조화롭게 지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모두에게 보다 풍성한 만족을 안겨 줄 수 있다. 따라서 각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기본적인 경제 원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교과서에서는 이 같은 자유주의적 경제원리에 충실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과 부합되는 상호 호혜적인 경제 선택을 더불어 강조함으로써 개인적 이익 추구와 공공선의 실현이라는 대립되는 가치의 조화점을 찾고 있다.

#### 다. 사회·문화 영역

‘사회·문화’ 과목은 사회·문화 현상을 반성적으로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민주 복지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을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심화 선택 과목이다. 내용 구성은 주로 사회학과 문화 인류학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문화의 특성 및 여러 사회 문제 등으로 되어 있다.<sup>81)</sup> 이는 복잡하고 다변적인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한 합리적인 대안을 탐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함이다.

##### (1) 단원의 구성 및 주요 학습 내용

---

81) 교육인적자원부(2001), 앞의 책, p.276.

<표-6>사회·문화 교과서의 단원구성 및 주요내용<sup>82)</sup>

| 대단원                         | 중단원                       | 주요학습내용  |
|-----------------------------|---------------------------|---|
| I.<br>사회·문화<br>현상의 탐구       | 1. 탐구대상으로서<br>의 사회 문화     |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사회·문화 현상을 탐<br>구하는 학문들,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
|                             | 2. 사회 문화 현상<br>의 탐구 방법    | 사회 과학의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의 종류<br>와 특징, 사회 조사의 과정                                     |
|                             | 3. 사회 문화 현상<br>의 탐구와 일상생활 |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 사회·문화<br>현상의 탐구와 가치 문제, 사회 과학 연구의 활<br>용,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윤리적 문제 |
| II.<br>개인과 사회<br>구조         | 1. 개인 생활과<br>사회 구조의<br>탐구 | 개인의 지위와 역할, 개인과 사회, 사회 구조의<br>이해, 인간의 사회적 성장 과정과 청소년의 역할<br>수행                    |
|                             | 2. 집단과<br>조직 생활의 이해       | 사회 집단과 조직의 특성, 관료제, 비공식 조직과<br>자발적 결사체  |
|                             | 3. 사회 계층 현상<br>의 이해       | 사회계층과 사회 계급, 사회 계층을 보는 관점,<br>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계층 이동, 사회적 불평<br>등 현상의 개선              |
| III.<br>공동체<br>생활과<br>지역 사회 | 1. 가족 생활과<br>친족관계의 이해     | 혈연 공동체의 특징, 우리 나라 가족과 친족의<br>특성과 변화, 가족 문제의 양상과 대처 방안                             |
|                             | 2. 농촌과 도시사회<br>의 분석       | 농촌과 도시의 특성, 산업화와 지역 공동체, 미래<br>의 농촌과 도시   |
|                             | 3. 지역과 국가 공<br>동체의 균형 발전  | 지역 사회, 우리 나라의 지역 사회 개발, 지역과<br>국가 공동체   |
| IV.<br>인간과<br>문화 현상의<br>이해  | 1. 인간의 문화<br>창조           | 인간과 문화,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
|                             | 2. 문화의 속성과<br>일상 생활의 이해   | 문화의 속성, 가족과 문화, 정치와 문화, 경제와<br>문화   |
|                             | 3. 문화 변동과<br>민족 문화의 발전    | 문화 변동, 현대 사회의 문화 양상, 민족 문화의<br>이해와 발전   |
| V.<br>현대 사회와<br>사회 문제       | 1. 현대 사회의<br>특징           | 현대 산업 사회의 형성과 발달, 여러 나라의 근<br>대화 과정, 대중 사회와 대중 매체, 산업 사회에<br>서 정보 사회로의 변화         |
|                             | 2. 현대<br>사회 문제와 대책        |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시각, 사회 문<br>제의 성격과 발생, 다양한 사회 문제들                               |

|                         |                     |   |
|-------------------------|---------------------|---|
|                         | 3. 가치관과 사회 발전       | 가치관 혼란의 사회적 배경,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대책, 현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갖추어야 할 가치 |
| VI.<br>미래 사회의<br>전망과 대응 | 1. 정보 사회의 전개와 대응    | 정보 사회의 형성, 정보 사회의 빛과 그림자, 정보 사회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
|                         | 2. 민주 복지 사회의 이상과 전망 | 복지 사회의 이념과 발달, 복지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                           |
|                         | 3. 한민족의 현재와 미래      | 급변하는 세계와 우리나라의 미래, 남북 통일을 위한 노력                           |

(2) <표-1>각 이론의 개념범주 틀을 이용한 교과서 내용분석

▶ II-1. 개인 생활과 사회 구조의 탐구

: [항목2] 사회에 우선하는 개인, [항목10] 개인에 우선하는 사회와 관련하여...

‘개인 생활과 사회 구조의 탐구’ 단원에서는 사회적 개인의 지위와 역할을 파악하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 개인을 구속한다는 전제 하에 인간의 사회화 과정과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이 단원에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적 관점은 개인은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고 그 안에서 각자의 지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인간관과 대비되는 사회구성적 인간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는 교과서 상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82) 김태현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사용 지도서」, 금성출판사. 참고.

...사회적 지위는 사회 조직의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고 개인과 사회 구조를 잇는 매개체이다...(김성출판사, 사회·문화, p.53) ▷[항목 20] 관련

...개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경우에는 사회가 발전하지만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대한교과서, 사회·문화, p.52) ▷[항목 20, 15] 관련

교과서에서는 ‘지위’와 ‘역할’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개인의 지위와 역할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규명되어짐을 설명하고 있다. 또 각자의 지위에 맞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데, 이는 개인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도 개인의 중요한 과제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서술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 생 을 하면서 사회의 공통된 생 양식과 가치, 신념 및 관습 등을 습득하게 된다. 인간이 공동 생 을 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 생 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중략)...사회적 관계는 개인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개인을 구속하기도 한다...(김성출판사, 사회·문화, p.56) ▷[항목 10, 11, 20] 관련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교과서의 입장이 공동체주의에 편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에서는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을 나란히 소개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사회 실재론이나 사회 명목론은 개인과 사회 중에서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회는 있을 수 없고, 사회 없는 개인도 역시 성립할 수 없다...**(중략)...오늘 날에는 개인과 사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개인과 사회의 밀접한 상호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그 관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사회는 인간 없이 그 존재를 스스로 드러낼 수 없고, 인간도 사회를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한교과서, 사회·문화, p.57) > [항목 2+10] 관련

...개인을 떠난 사회는 있을 수 없고, 사회를 떠난 개인도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개인과 사회가 모두 실제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균형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보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즉,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금성출판사, 사회·문화, p.57) > [항목 2+10] 관련

이처럼 교과서에서는 극단적인 형태의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는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어느 한 쪽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즉 자유주의적 시각과 공동체주의적 시각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III-2. 농촌과 도시 사회의 분석

: [항목 2] 사회에 우선하는 개인, [항목 22] 공동체 의식, 협동 의식, 상호 존중과 관련하여...

‘농촌과 도시 사회의 분석’ 단원에서는 오늘날 농촌과 도시 사회의 특징과 변화 및 그 원인을 이해하고, 보다 발전적인 사회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단원의 분석은 교과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짚어보고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가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도시 문제의 근원인 이기주의, 익명성,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원 각자는 의식을 개혁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사회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대한고과서, 사회·문화, p.119) ▷[항목 22] 관련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농촌 지역에 비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범죄 발생율이 높다. 도시화는 범죄를 포함한 각종의 사회 병리와 일탈 행위를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 사회의 빈번한 사회적 이동과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사회 통제가 약해지고, 규범이나 가치관의 변화도 심해져 아노미 상태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금성출판사, 사회·문화, p.118) ▷[항목 11, 22] 관련

오늘날 농촌과 도시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다. 특히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사회 해체 현상으로 인해 원자화된 개인들의 이기주의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의 약화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흔히 자유주의의 병폐로도 지적되고 있는 현상들이다. 교과서에서는 자유주의적 가치들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를 지양해야 할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일련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결속력 있는 공동체의 희생을 제안한다.

...과거에는 공동체의 결속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오늘날에는 우리라는 의식을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농촌과 도시로 나뉘는 지역 사회는 밀접한 상호 보완 관계를 맺고 있으나, 자기 지역만을 생각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심각한 대립을 보이기도 한다...(중략)...앞으로의 공동체는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또는 혈연과 학연 등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우리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공동체

성원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대한교과서, 사회·문화, p.122) ▷[항목 21, 22]관련

...미래의 도시는...(중략)... 각 계층별, 인종별 공동체의 특성과 문화적 차이점을 존중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중략)...궁극적으로는 소비와 생산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를 이루어 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친밀감, 바른 도덕과 깊은 정서, 사회적 응집력, 시간의 연속성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중략)...또한,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비인간화 문제, 대중 소비 문화와 계층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중 사상과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사상 위에서 '시민 공동체적 도시 만들기'라는 대안적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금성출판사, 사회·문화, p.122) ▷[항목 22]관련

이처럼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 공동체의 전형(典型)으로 나눔과 연대의 미덕이 살아있는-우리의 옛 농촌공동체와 흡사한-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IV-1. 인간의 문화 창조, IV-2. 문화의 속성과 일상 생활의 이해, IV-3. 문화 변동과 민족 문화의 발전 : [항목 10] 개인에 우선하는 사회, [항목 11]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 존중 및 전통 문화의 계승 강조와 관련하여...

‘문화의 속성과 일상 생활의 이해’ 단원에서는 문화의 속성을 이해하고 문화의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정치·경제생활을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 분석의 초점이 되는 것은 인간 생활을 규정짓는

외부적 힘으로서의 문화이다. 각 사회가 처해 있는 상이한 자연 환경과 사회 구조, 역사적 과정 및 사회적인 조건은 다양한 문화를 형성시켰고, 어떤 한 사회의 특수한 문화는 그 문화 영역 내에 있는 개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동체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구성적 존재로서의 인간관과 의미를 같이 한다. 문화의 창조자임과 동시에 문화에 구속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과 문화는 거미와 거미집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 거미가 개인이고 거미집이 문화라고 한다면, 거미가 자신의 몸에서 거미줄을 뽑아 내어 거미집을 만들 듯이 **개인**은 **문화의 창조자인 동시에 그 자신이 지어 낸 거미집인 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 할 수 있지 않을까?(대한교과서, 사회·문화, p.140) ▷[참고 10] 관련

이와 같이 문화 구속적인 인간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서술은 ‘문화의 속성과 일상생활의 이해’단원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접하게 되는 모든 사회적 경험들은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와 맞닿아 있다. 교과서에서는 결혼과 가족, 정치, 경제와 같이 인간의 삶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문화’라는 하나의 맥락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특수한 자연적·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이러한 사회 제도들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 낸 ‘문화’의 일종이며, 그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 변동과 민족 문화의 발전’ 단원에서는 공동체의 역사, 전통, 문화, 공동의 신념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은...(중략)...두레, 울력, 품앗이와 같은 공동 노동 조직 형태를 만들기도 하였고, 더불어 사는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고자 향약이나 계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 에서 나타난 전통의 한 특징인 상부 상조의 생 방식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중략)...외래적인 문화 요소들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우리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김성출판사, 사회·문화, p.178) ▷[항목 11, 22] 관련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상부상조와 협동 단결의 전통은 동제, 두레, 품앗이, 계, 향약과 같은 전통 문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같은 특징들은 현재의 문화 요소들에도 많이 남아 있다...(대한고과서, 사회·문화, p.177) ▷[항목 11, 22] 관련

위의 서술에서는 우리나라의 소규모 농촌 공동체에서 볼 수 있었던 두레, 품앗이와 같은 협동적 공동체 문화를 가치로운 것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민족 문화도 한국을 초월하여 세계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 문화의 가치와 본질을 알고, 숨겨진 전통 문화를 재창조하여 세계 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김성출판사, 사회·문화, p.179) ▷[항목 11] 관련

공동체주의자들은 오랜 역사에 걸쳐 다수의 구성원들의 경험과 합의에 의해 형성된 전통 문화를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개인은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교과서 상의 서술은 이러한 공동체주의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3. 가치관과 사회 발전

: [항목9] 자율적 선택의 강조, [항목12] 합의된 법과 규칙 준수,  
[항목22] 공동체 의식, 협동 의식, 상호 존중과 관련하여...

‘가치관과 사회 발전’ 단원에서는 가치관 혼란의 배경을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탐색해보고 보다 발전적인 사회를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단원의 내용을 통해 교과서가 현대 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교과서에서는 가치관의 혼란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곧 사회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주의적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가치관 혼란의 원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은 지나치게 개별화·다원화 된 개인의 가치추구는 자칫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개방화되면서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고, 상호 존중되는 사회 속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김성출판사, 사회·문화, p.215)

현대 사회의 가치 갈등과 가치 혼란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며,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한 교과서 상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가치 갈등과 혼란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으며...(중략)...따라서, 사회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 행동을 규율하고 제어하는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중략)...현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될 수 있는 **기본적, 보편적인 가치로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준법 의식과 책임의식** 등을 들 수 있다.(김성출판사. 사회·문화, p.220) ▷[항목 1+12, 22] 관련

...현대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존중, 공동 생을 위한 참여 의식, 양보와 타협, 법치 사회의 운영을 위한 준법 정신의 함양**, 그리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위한 **상호 신뢰의 정신** 등을 들 수 있다. (대한교과서, 사회·문화, p.213) ▷[항목 1+12, 22] 관련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시 되는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 일부 계층의 이익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개개인의 존엄성 보장만을 강조하다 보면 지나친 ‘가치의 다원화’로 인한 혼란이 야기 될 수도 있다.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배려와 관용을 강조하는 공동체 의식이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의 질서 유지와 갈등 해결의 준거이자 공동체의 약속인 법을 준수하고 이를 내면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준법 정신 등을 꼽고 있는데, 이는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동체주의적 가치가 적절히 조화되어 실현될 때 사회가 발전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V. 결 론

### 1. 요약

교육을 논함에 있어 우리의 근원적인 관심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우리의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근대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자리 잡기 시작한 자유주의 철학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독립적 개체로서의 인간을 전제한다. 그리고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떠한 사회적 가치보다도 우선하여 존중될 제1의 가치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은 사회적 책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역점을 둔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개인차에 따른 다원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이익을 위한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는 철학적 근거가 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성과 물질적 풍요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대 사회의 질병을 야기하기도 했다. 개인의 경쟁적인 이익 추구로 인한 이기주의, 공동선에 대한 무관심, 사회적 연대의 이완, 인간 소외, 차등적 자유 등이 그것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각종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극복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적 가치의 확산으로 인해 공동체적인 삶이 붕괴되는 것을 반대하며 성원의식과 연대감, 온정적 배려 등에 근거한 공동체가 회생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개인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운명을 띠며 사회에 예속되어 있고, 그들의 가치관이나 정체성마저도 그가 속한 사회의 가치체계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공동체주의는 공동체가 개인보다 우선하며,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 안에서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헌신하고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공동체주의는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이기적인 개인들을 따뜻한 인간관계에 근거한 하나의 공동체로 아우르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 역시 한계점을 갖는다. 공동체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개인적인 차원의 고려가 부족한데서 오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가치-역사, 전통, 문화, 공동의 신념 등-를 중시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수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인 개인을 양산해 낼 우려가 있다. 또한 개인적 다원성 보다는 사회 공동의 가치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

이렇듯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그 자체로서 완벽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가치가 갖는 한계점을 상호보완하고 적절히 조화를 이룸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발전을 보장해 줄

때 개인과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유기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서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일반사회 영역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분석을 통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가치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2.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앞서 진행된 교과서 내용분석 과정을 통해 <표-7>과 같은 수치상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엄격한 의미의 통계적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의 분석방법에 한해서 자유주의 및 공동체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각 항목별로 얼마나 기술되었는지 대략적인 분포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서의 기술내용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각 교과 영역에서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7>은 앞서 제시한 <표-2>와 같은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 즉, 특정 문맥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요소가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표-1>-에서 어떤 항목과 관련이 있는지 찾아낸 후 그것이 나타난 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색이 채워진 부분이 각 항목과 관련된 기술 내용이 포함된 횟수이며, 한 칸은 1회로 설정했다.

<표-7>교과서 기술내용의 각 항목별 분포

| 항목                    |       | 정치 |  |   |  | 경제 |  |   |  | 사회·문화 |  |   |  |
|-----------------------|-------|----|--|---|--|----|--|---|--|-------|--|---|--|
|                       |       | A  |  | B |  | A  |  | B |  | A     |  | B |  |
| 개인적 권리의 우선성           | 항목 1  | 3  |  | 3 |  |    |  |   |  | 1     |  | 1 |  |
|                       | 항목 2  |    |  |   |  |    |  |   |  | 1     |  | 1 |  |
| 개인주의적 인간관             | 항목 3  | 1  |  |   |  |    |  |   |  |       |  |   |  |
|                       | 항목 4  |    |  |   |  | 2  |  | 3 |  |       |  |   |  |
|                       | 항목 5  |    |  |   |  |    |  |   |  |       |  |   |  |
| 반완전주의적 국가             | 항목 6  | 1  |  |   |  |    |  |   |  |       |  |   |  |
|                       | 항목 7  |    |  |   |  | 1  |  | 2 |  |       |  |   |  |
|                       | 항목 8  |    |  |   |  |    |  |   |  |       |  |   |  |
| 개체적·합리적·자율적 인간        | 항목 8  |    |  |   |  |    |  |   |  |       |  |   |  |
|                       | 항목 9  |    |  |   |  | 1  |  |   |  |       |  |   |  |
| 공동체에 의한 구성적 존재로서의 인간관 | 항목 10 |    |  | 1 |  |    |  |   |  | 2     |  | 2 |  |
|                       | 항목 11 |    |  |   |  |    |  |   |  | 1     |  |   |  |
|                       | 항목 12 |    |  |   |  |    |  |   |  | 1     |  | 1 |  |
| 공동선의 개념 강조            | 항목 13 | 1  |  |   |  | 3  |  | 3 |  |       |  |   |  |
|                       | 항목 14 |    |  | 2 |  | 3  |  | 3 |  |       |  |   |  |
|                       | 항목 15 | 2  |  |   |  | 3  |  | 2 |  | 1     |  |   |  |
|                       | 항목 16 | 2  |  | 1 |  |    |  |   |  |       |  |   |  |
| 완전주의적 국가              | 항목 17 | 1  |  | 1 |  |    |  |   |  |       |  |   |  |
|                       | 항목 18 | 2  |  | 2 |  |    |  | 1 |  |       |  |   |  |
|                       | 항목 19 |    |  |   |  |    |  | 1 |  |       |  |   |  |
| 성원의식과 연대감의 강조         | 항목 20 |    |  | 1 |  |    |  |   |  | 1     |  | 2 |  |
|                       | 항목 21 |    |  | 2 |  |    |  |   |  | 1     |  |   |  |
|                       | 항목 22 | 1  |  |   |  | 1  |  |   |  |       |  |   |  |

<표-7>을 보면, 정치 영역에서는 주로 민주적 정치체제에서의 국민의 권리를 자유주의적 가치를 통해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의 성립 및 역할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의미를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치발전을 위한 참여와 성원의식을 중시하고, 사회통합 및 사회발전을 지향점으로 삼아 이를 위한 국민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공동체주의적 요소에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영역에서는 ‘사적 이익 추구의 보장’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전제로 경제체제를 설명하고 있으며,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익과의 조화를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공동선의 실현’이라는 공동체주의적 가치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어느 한편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사회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권리를 갖는 개인을 설명함과 동시에 개인에 대해 외부적 실재로 인정되는 사회를 강조하는 것이다.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들, 이를테면 문화, 전통, 관습 등을 가치로운 것으로 여기고 계승·발전시킬 것을 역설하고 사회발전을 위한 공동체 의식과 참여 의식을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사회·문화 교과가 다분히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8>와 같다.

<표-8> 각 교과 영역에서의 강조점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
| 자유주의  | -개인적 권리의 우선성           | -개인주의적 인간관<br>(사적 이익 추구의 보장을 중심으로) | -개인적 권리의 우선성                         |
| 공동체주의 | -공동선의 개념<br>-성원의식과 연대감 | -공동선의 개념                           | -공동체에 의한 구성적 존재로서의 인간관<br>-성원의식과 연대감 |

교과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교과 영역을 불문하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나 이상(理想)은 자유주의적 가치에 기초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나 방법적인 측면은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따르고 있다.

또한 각 영역별 교과서의 내용을 문맥 단위로 분석해 본 결과, <표-9>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자유주의보다도 공동체주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첫째, 사회과가 국가의 정치체제, 사회 공통의 신념체계, 사회적 합의, 전통과 역사 등을 전달하는 핵심교과라는 점 둘째, 사회과교육과 이를 위한 교과서의 편성이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 교육과정이라는 점이다.

<표-9>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교과서 상의 비율

|       | 정치 |    | 경제 |    | 사회·문화 |    | 총계 |    | 비율  |     |
|-------|----|----|----|----|-------|----|----|----|-----|-----|
|       | A  | B  | A  | B  | A     | B  | A  | B  | A   | B   |
| 자유주의  | 5  | 3  | 4  | 5  | 2     | 2  | 11 | 10 | 22% | 23% |
| 공동체주의 | 18 | 10 | 10 | 10 | 11    | 13 | 39 | 33 | 78% | 77% |

분석 결과를 각 교과 영역별 특징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정치 영역

정치영역에서는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민주주의’라는 구심점을 통해 융화시키고 있다. 정치 교과의 교육 목적이 ‘민주 시민의 육성’에 있는 만큼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일반적인 생활 영역에까지 확대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의 누려야 할 당위적 권리를 알고 이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다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사회를 위하여 민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공동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다. 전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목적이고 후자는 공동체의 발전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정치 과목의 개괄적인 교육 목적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가치가 함께 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세부적인 교육 내용 선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과서 서술 내용의 내재적 의미를 파고들면 암묵적으로 공동체적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듯 하다. 정치 교과의 실제 목적과 교육 내용은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민주주의적 생활태

도를 내면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자유주의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국가 공동체의 합의된 신념체계인 민주주의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목적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권리’에 대해 기술할 때 항상 ‘공익과의 조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고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익에 대해 배타적인 ‘자유’는 고려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자유’와 ‘권리’, ‘공익’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복잡하고 다면적인 현실상황을 충분히 언급하지 못한 채 교육을 담당하는 개별 교사의 재량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공익의 실현은 대부분 따로 분리되어 있기보다는 풀기 힘든 실타래처럼 하나의 갈등 상황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는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 2) 경제 영역

경제 영역에서는 경제체제와 관련하여 특정 가치만을 전달하고 강조하기 보다는 다양한 경제 이데올로기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反완전주의 국가관’은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한다. 이와 반대로 공동체주의의 ‘완전주의 국가관’은 계획경제체제

와 그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자유방임주의와 계획 경제체제 그 어느 것도 완전한 경제체제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둘의 상호보완적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혼합경제체제를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특정한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 가치만을 지향하기 보다는 이 둘의 상호보완과 조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경제 교과는 경제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추고 바람직한 경제 윤리 의식을 내면화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지식, 기능, 사고 등을 함양하여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경제주체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교과 교육 목적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 이어지는 두 가지 가치지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적 경제주체로서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인간의 자율성과 합리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 의식을 함양케 하는 것은 공동선의 실현을 우선시 하는 공동체주의적 사고에 근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적 이익의 추구’라는 자유주의적 가치는 경제 교과 내용의 근간을 이루는 대전제라 할 수 있다. 각자의 만족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경제활동은 비록 그것이 타인에 대한 봉사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시키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마땅히 추구되어야 할 기본 원칙

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 보완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사적 이익에 우선하는 공동선,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체제의 불평등과 혼란을 조정해 줄 국가권력 등과 같은 공동체주의적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은 만족 또는 이윤의 극대화와 공동체의 이익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 교과서에서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서로의 필요에 의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고, 이 둘의 조화와 균형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기적 이익 추구보다 상호 호혜적인 경제활동이 어떤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개인과 공동체의 구조적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개인이 자신의 만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하고 공익과의 조화를 생각한 선택을 했을 경우 그것이 개인과 공동체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납득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그것에 동의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사회·문화 영역

사회·문화 영역은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과목명에서도 보여지듯이 주요 교육내용이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사회에의 적응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내용 분석 결과 사회·문화 교과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공동체주의 이론에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사회와 분리된 개별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인간관과 대비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에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성을 중시하고 개인이 접하게 되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사회는 개인을 둘러싼 외부적 실재로 인정되고 있다.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 전통, 역사, 신념 등의 영향을 받고 개인적 삶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의 토대위에서 영위된다. 이에 따라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정당성을 확보한다. 셋째, 사회해체, 공동체의 와해 등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보통 공동체적 가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며, 이러한 가치가 유실되는 것은 일종의 병리현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문화 교과서가 일방적으로 공동체주의 가치만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갖추어야 할 가치관으로서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같은 것-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설명을 확실히 하고 있고, 개인과 사회는 모두 실재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균형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과서에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경계하면서, 존엄한 존재로서의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3. 결 론

이상의 교과서 내용 분석 결과를 볼 때 사회과교육은 대체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균형과 조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 분량의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보편적인 가치는 사회과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핵심적 지표가 된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그 어떤 목적에도 우선하는 절대적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배제할 수 없다. 수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추구된다면 어떤 한 사람의 자유 실현이 곧 다른 누군가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사회에 속해 있을 때라야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공동체주의적 인간관에 합의하는 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의 -더 큰 자유를 위한- 일정한 제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사회과교육의 책임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 양보와 배려, 관용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가 사회적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해 줄 최선의 조건임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즉,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 하는 자유주의적 가치의 진의(眞意)를 ‘나 중심주의(I-Centrism)’로 오해하고 왜곡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의 설명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관으로 내면화하여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수업내용과 현실의 모습이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모범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체계적인 수업 모형과 교수 방법, 교육 자료들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심성보(1995), “공동체의식의 교육윤리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
- 이인숙(1995), “공동체주의에 대한 연구: 자유주의와 관련해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
- 김선구(1992), “교육목적으로서의 자율성과 공동체”,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정명자(1992), “Rawls의 정의론에 입각한 자유교육의 개념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
- 전영곤(2002), “자유주의·공동체주의·신자유주의의 교육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창원대.
- 전제아(1991),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과 교육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 서임수(1998), “자유주의적 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 추정훈(1994), “공동체 형성 논리에서 본 사회통합교육”,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 이미나(1995), “공동체 문화를 위한 사회교육과정개발”, 홍익대학교교육연구회, 교육연구논총 12('95. 12), pp. 151-179.

- S. Mulhall & A. Swift(김혜성 · 조영달 역; 200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 J. Rawls(황경식 역; 2003),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서울: 이학사.
- 정세구 외(2002), 「공동체주의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이지현 편저(1997), 「개인 · 공동체 · 교육 II -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사회주의」, 서울: 교육과학사.
- 차경수(2004), 「현대의 사회과교육」, 서울: 학문사.
-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 서울: 대한교과서.
- M. Walzer(김용환 외 역; 2001), 「자유주의를 넘어서」, 서울: 철학과 현실사.
- M. Walzer(정원섭 외 역; 1999), 「정의와 다원적 평등」, 서울: 철학과 현실사.
- 사회교육연구회(2001), 「智識과 思考」, 서울: 학문사.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외(2003),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울: 교육과학사.
- 
- 김왕근 외 4인(2005), 고등학교 정치, 서울: 법문사.
- 최병모 외 5인(2005), 고등학교 정치, 서울: 대한교과서(주).
- 조도근 외 6인(2005), 고등학교 경제, 서울: (주)두산.
- 김진영 외 4인(2005), 고등학교 경제, 서울: 대한교과서(주).
- 김병무 외 5인(2005), 고등학교 사회 · 문화, 서울: 대한교과서(주).

김태현 외 4인(2005),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울: (주)금성출판사.

김왕근 외 4인(2002), 고등학교 정치 교사용 지도서, 서울: 법문사.

김진영 외 4인(2002), 고등학교 경제 교사용 지도서, 서울: 대한교과서.

김태현 외 6인(2002),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사용 지도서, 서울: 금성출판사.

# ABSTRACT

## **Liberalism and Communalism in Social Study *Education*** **-Focused on Content Analysis of High School Textbook-**

**Song Hye Jin**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Before we discuss education, we need to find an answer to a more fundamental question, "what is a desirable value we have to pursue?" The procedure of such contemplation will clearly present the direction of education in order to realize values we pursue.

Many people criticize in self-mockery that we suffer from various social problems caused by extreme selfishness and exclusive competition of the modern society. Negative aspects of social change appeared along with the expansion of liberty since the modernization have attracted attention, and people started to be skeptical of 'liberty' which had been considered as an absolute virtue. Moreover, as an alternative to heal the ills of the modern society, a revival of community based on the communal consciousness has been proposed.

Which value should we pursu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modern society and proce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Liberalism and communalism present different answers to this question. Liberalism considers liberty and rights of individual as priority and emphasizes the realization of these values. On the other hand, communalism considers society more important than individual, thus the communal value should be a priority. However, liberalism and communalism are not complete by themselves alone, thus they have to seek a balance and harmony. 'Individual' and 'community' can fully function only when they are complementary and in an organic relation with each other.

Under the judgement that liberalism and communalism should be in balance and harmony, a premise is drawn that the education in Korea should pursue such value, and it is examined how the contents related in this subject are treated in social studies.

As a method of this study, a specific content description is analyzed in order to examine which values related to the subject of this study are sought after in general social studies textbooks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 culture) of the current 7th Curriculum. As a theoretical ground to analyze the contents of textbooks, arguments of scholars representative of each theory are used as a basis. Liberalism is based on J. Rawls' 'A Theory of Justice' and communalism is based on theories of A. MacIntyre, M. Sandel, C. Taylor, and M. Walzer who

critically analyzed Rawls' theory and presented opposing arguments.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scholars' arguments, a common characteristic is induced in this study.